

- 교회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만남 -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변화

■ 일 시 | 2009년 10월 29일 14:00~17:00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 최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사)한국자원봉사포럼
KOREA FORUM OF VOLUNTEERISM

■ 후 원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Korea Council of Volunteering

■ 협 찬 |  SAMSUNG



목 차

진행순서 5

시민자원봉사현장 7

개 회 사 손 인 웅 / 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덕수교회 목사 8

환 영 사 김 경 동 /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서울대 명예교수 10

기조강연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조 흥 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3

주제발표

①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강화 23

김 기 원 /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공적체계 구축 55

정 무 성 /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③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방안 67

이 성 록 /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사례발표 종교단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종교HCC 87

김 희 경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부 록

한국교회봉사단 소개 103

한국자원봉사포럼 연혁 108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 ~ 14:30	접수 및 등록	
14:30 ~ 14:50 (20분)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손인웅(한국교회봉사단 대표·덕수교회 목사)
	환 영 사	김경동(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서울대 명예교수)
	격 려 사	이제훈(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14:50~15:10 (20분)	기조강연	한국교회봉사와 지역사회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10 ~ 16:50 (100분)	좌 장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1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강화
		김기원(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제2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공적체계 구축
		정무성(승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발 제3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방안
		이성록(국립한국재활복지대 교수)
사례발표	종교단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종교HCC	
	김희경(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전체 토론 및 플로어 Q&A		
16:50 ~ 17:00	폐회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함께하는 자원봉사, 행복한 지역사회

손 인 응 / 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 · 덕수교회 목사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이렇게 빠르게 국민사이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정서적 토양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음양으로 힘써 온 교회를 비롯한 민간자원봉사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30일 정기국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06년 2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적 역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 나가는 일입니다.

한국의 자원봉사 역량이 급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관련된 부서와 사람들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조직은 폐쇄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와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 기관, 특히 자원봉사센터와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입니다.

“

교회와 지역 내의 자원봉사기관은 모두 문제에 처한 개인과
지역사회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사회봉사활동에서
헌신성과 도덕성, 자원동원 측면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봉사 정책의 전문성과 활동의 연대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자원봉사기관 역시 제도적인 틀 속
에 갇혀 관변화 되었으며 자원봉사 본연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
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
는 교회와 자원봉사기관 간의 협력과 연대는 자원봉사를 매개로 사회의
욕구에 응답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이번 포럼은 매
우 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네트워크 구축은 모든 분야 발전의 핵
심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 교회와 자원봉사계가 함께 공통의 과제로 고민하
는 포럼을 통해 보다 더 생산적인 협력의 모델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되어 지역주민을 주체로 세우면서도 자원의 효
율성과 성과면의 효과성을 동시에 모색하므로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
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포럼 참석자 모두에게 유익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포럼에 발표를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서로 다른 환경과 정서로
인해 실무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준비를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자원봉사포럼의 관계자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09년 10월

교계와 민간자원봉사가 공동의 토론마당을 펼치는 것은 가히 역사적인 일

김 경 동 /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 서울대 명예교수



개신교계가 민간자원봉사계와 함께 한국교회봉사와 지역사회변화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이 모임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한국자원봉사포럼을 대표하여 참가하시는 여러분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성장은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나 근자에는 양적인 성장의 문제점에 대한 힐책과 비판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개인의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리와 개별교회 중심의 대외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의 대사회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변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와 마주 서야 마땅하건만, 지금까지는 주로 급변하는 사회에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소극적인 접근을 취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몸짓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이런 뜻에서 지역사회봉사를 교회의 주요 과제로 삼는 일은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을 만큼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본원적으로 ‘관계성’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특이한 관계적 신관을 제시합니다. 둘째, 그러한 신은 독생자를 희생함으로써 구원을 약속하신 사랑의 신입니다.

“

사실 교계가 민간의 자원봉사 단체와 파트너가 되어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미래 한국사회와 교회의 사회봉사 및 공동체 운동에 관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토론마당을 펼 수 있게 된 것은 가히 역사적인 일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이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셋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체가 되는 에큐메니칼 관계를 형성하려는 ‘하나 되기’의 종교입니다. 넷째, 그 관계는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궁극적 목표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봉사가 주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가리키는 service 는 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베풀고 주는 행위, ② 종이 되어 섬기는 일, ③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이라는 복합적인 뜻을 내포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섬김’입니다. 선교도 섬김의 한 형식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대사회 관계를 정립하려 할 때는 이와 같은 ‘관계성’ 종교인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하여 사회로 나아가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섬김’의 봉사를 함으로써 마침내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는 목표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적 관계는 개별교회의 회중들 속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른 교회들과 연대하여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고, 이를 다시 사회 속으로 전

이하에 지역사회봉사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한 가지 실천적인 과제를 제안합니다. 교회가 연합하든지, 대형교회는 독자적으로라도, 각기 소재하는 지역사회에다 자원봉사 센터 형식의 복합적 사회봉사기관을 반드시 하나씩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관주도로 운영하는 봉사기관들은 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자발적 민간운동의 본질을 훼손당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회가 설립하는 봉사기관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면서도 전문성이 뛰어난 효율적인 봉사운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이 봉사와 공동체운동을 주도할 뿐 아니라, 관변화하는 기존의 봉사기관들이 하루 속히 관의 손길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교회봉사단의 손인웅 대표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격려해주신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님, 그리고 오늘의 기조강연, 좌장, 발제, 토론을 맡아 주신 조흥식, 김동배, 김기원, 정무성, 이성록, 김희경 님과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보람 있는 모임이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만날 앞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알찬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환영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기초강연

한국교회봉사와 지역사회

조 흥 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교회봉사와 지역사회

조 흥 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자원봉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지난 40여 년간의 압축경제성장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반면에, 이에 따른 불평등 요인의 증대, 물질만능주의, 인간경시풍조,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만연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공동체의식을 크게 파괴하였다. 또한 과거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붕괴되고 그 결과 가정의 역할은 크게 축소됨으로써 가정이 담당했던 기능은 대부분 국가사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더구나 2008년 9월 미국 월가에서 출발한 세계금융위기는 이제 탐욕스런 자본주의를 대신할 공동체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간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회복이야말로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란 한마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합심 협조하여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는 정부의 사회복지제도나 어느 특정인,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완전히 달성될 수 있으며, 그 첫걸음은

자원봉사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가치는 지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남과 더불어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회 속에서 침해를 당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생활 속에서 윤택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 셋째, 건전하고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보호·육성해주며, 나아가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포근한 정도 잘 나누게 한다. 넷째, 사회 전체를 잘 구성하기 위한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잘 엮어 가는 활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 자격을 익혀 가는 평생교육의 못자리판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활성화될 것은 분명하다(조홍식, 2009:14-15).

2. 교회봉사는 왜 중요한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 조직이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사회조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상부상조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웃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랑의 실천에 인색하다고 지적을 받는다. 선교의 도구나 수단이 아닌 진정한 나눔과 공생을 위한 실천에 무디다는 것이다. 교회 자체가 소외 계층과 거리를 두기도 하는데, 특히 교회가 중산층화 되고 귀족화 되면서 기독교사회복지 활동을 기피해서 근로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예산은 교회 총예산의 평균 3-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회 건물을 주중에 지역사회를 위해 공개하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2008년도에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직접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응답자의 18.4%에 불과한 반면,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48.3%로 나타나 개신교회에 대한 불신자 수가 신뢰자 수보다 3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현재 비기독교인일수록 불신의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은 교회 성장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충격적이다. 아울러 사회와는 담 쌓은 개교회 활동만으로는 한국 교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임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나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현황이 잘 소개가 된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신뢰지수의 차이 중 3분의 1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시 말하여 한국 개신교회가 교회 내 활동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사회구성원과의 소통을 잘 해 나간다면 성장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사회봉사와 구제, 윤리와 정직 운동 등을 교회 밖인 사회에서 잘 전개하는 등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사회신뢰성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잘 제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발표 당시 이 조사결과는 한국 개신교회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개신교회의 단합된 실천의 목소리는 아직도 잘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교회봉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회 신뢰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민간 자원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경에서 자원봉사의 극치와 전형을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눅 10 : 25-37)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치유와 화목의 행위’로서 상처를 싸매 주고, 갈라진 틈을 메우며,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노력(Cox, 1996)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무튼, 항상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며,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주님이 주신 사랑의 참된 실천임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봉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본이 된다. 사랑은 결코 ‘홀로 서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서기’에 있음을 깨달을 때 교회봉사가 갖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다.

3. 교회봉사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교회봉사는 단순한 봉사의 실천이나 그것을 통한 복지 혜택의 나눔을 주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봉사는 원칙적으로 소외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 대한 궁극적 구원을 꿈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교회봉사는 봉사자의 자기만족이나 개별적인 보상과도 무관하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안겨 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눅 6 : 38). 세상이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보상을 대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원봉사에 자발적이며 신속하게 나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윤철원, 2004).

교회봉사를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잘 하려면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수행해야 한다(김동배, 2007; 조홍식, 2001, 2009).

첫째, 교인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봉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교회는 주로 교인에게 이웃사랑은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봉사 활동 속에 교인들을 참여시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다. 특히 개인 능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봉사는 아주 훌륭한 사회봉사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민주사회 달성의 첩경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주원인은 봉사자에게 그 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동기부여를 주지 못한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재교육과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증진시키며, 전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의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나눔의 생활과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① 진정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한다. 교회 안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 신도들 간에 친밀감과 일치를 이룬다. ② 교회를 자원봉사 구조로 개편한다. 설교, 재정, 위원회, 선교회, 인력배치, 교육프로그램, 공간구조 등에 있어서 자원봉사 요소를 강화한다. ③ 자원봉사에 관한 소통

(communication)을 강화한다. 자원봉사에 관한 교회 내의 정보유통(뉴스레터, 팜플렛, 게시판), 특강, 간증, 보고집회를 활성화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여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영적, 지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문제와의 관계를 거부했고, 그 결과 성장의 정체현상을 맞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교를 담당하는 많은 교회들은 한결같이 지역사회센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지역사회란 결코 교회가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선교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교회(institutional church)에서 기능적 교회(functional church)로 변화해야 한다. 기능적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① 靜態的인 지역교회(local church)에서 動態的인 공동체사회 교회(community church)로 변화한다. ②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한다. ③ 복음의 역동성을 적용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각종 정치,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에 이 있어서 윤리적 판단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할 역량을 개발한다. ④ 지역사회 욕구와 우리사회 전체의 필요에 부응하여 교회 공간을 개방한다.

넷째, 자원봉사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① 사회봉사(혹은 사회선교)목사 제도를 도입한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사용, 자원봉사 능력개발, 교회내외의 정보교환, 지역사회와의 연결망 구축,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등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될 때 그 효율이 증대한다. 전문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이러한 Team목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② 전문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거나 후원한다. ③ 교회가 국가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할 수 없는 혹은 잘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분야에 리더십을 갖는다면, 이는 교회가 현대사회에서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 내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동시에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캠프와 어드바이저 제도를 만들고 교회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회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오늘날 네트워크 구축은 모든 분야 발전의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모든 조직은 폐쇄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근거를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교회와 지역 내의 자원봉사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교회와 지역 내의 자원봉사기관은 모두 문제에 처한 개인과 지역사회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복지 활동에서 그 동기와 정신, 그리고 지역적 토착성과 시설, 자원동원이라는 면에서는 큰 강점을 갖고 있으나 자원봉사정책의 전문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교회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회 간에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단의 지역협의체 같은 곳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지역복지기관과 연합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각 교회들의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중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자원봉사 활동이 종단간의 연합 또는 다른 복지 단체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게 되고, 결국 종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고취시킴으로써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교회 가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회봉사활동은 개개인이나 친구들 모임, 그리고 학교나 기업 등 각종 조직체의 봉사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사회에서 근간이 되는 가족들이 함께 하는 교회의 가족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봉사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가족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교회 주위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부모와 함께 쓰레기를 주위 공원과 집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일,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 가족과 함께 마을의 복지지도를 만들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 휴가를 이용하여 행락지 쓰레기나 담배꽂초를 가족들이 함께 줍는 일, 쓰레기 줄이는 생활을 가족이

공동으로 토론, 연구하는 일, 일회용 종이제품은 사용 안하는 일, 가정에서 음식을 아끼는 일 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배(2007), “자원봉사와 기독교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윤철원(2004), “자원봉사의 성서적 함의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사업』, 제2권, pp. 221-245.

조흥식(2001), “지역 사회복지와 교회 건물 개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대한기독교서회.

_____(2009), “자원봉사정책과 교회의 대응”, 정무성·조흥식 외, 『교회 자원봉사』, 공동체.

Cox, Harvey(1996), *The Secular City* (revised ed.), N. Y. : Macmillan.



발제1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강화

김 기 원 /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강화

김 기 원 /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¹⁾

국민의 삶의 질은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을 통해서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들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의 특정 대상집단의 삶의 질을 의도적으로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국민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정책도구로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활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일반 조세에 기반을 둔 공적부조제도, 고용주나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 그 밖의 사회복지서비스나 관련 제도들 모두 정부나 국민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는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제도적이고 강행적인 국민들의 재정부담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민간복지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민간복지는 기업,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조직 가족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민간복지의 실천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온 것이 자원봉사 활동 또는 자원복지이다.

1) 이 글은 필자가 2009. 10.29. 한국교회봉사단 주최 세미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일부는 필자가 그동안 발표한 학술논문들과 필자의 저서인 기독교사회복지(2009)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고대 자선적 구제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자선적 구제는 도덕적 동기나 종교적 동기에서 또는 자아 만족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 가운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나누거나 노력봉사 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이타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선적 구제는 초기에는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실시되었지만 점차 발전되어 문중, 지역, 종교, 동업조합 등을 기초로 하여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선적 구제활동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된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이었던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이스라엘 시대부터 기독교성도들의 자선적 구제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웃에 대한 의무로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성도들의 이웃에 대한 의무는 성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기초하고 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간에 떡을 떼는 공동식사를 통한 공동체 교제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성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 졌다. 교회는 자원봉사의 어머니 또는 자원봉사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어 진다. 교회의 자원봉사는 일반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근간이 되고 모범이 되었으며 성서의 이웃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자원봉사는 일반사회의 자원봉사와 그 대상이나 활동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자원봉사의 실천과정에서 성도들은 성서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원봉사의 다양한 특성들이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지만, 학자들이 주장한 자원봉사의 특성 가운데 전문성은 언급이 되지 않거나 언급이 되더라도 후순위로 언급이 되고 있어, 자원봉사에서 전문성이 본연의 속성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자원봉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교회사회봉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사회봉사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육-훈련대안, 전문가 참여대안, 법적-제도적 대안을 들 수 있다.

II. 교회 사회봉사와 자원봉사

사회봉사는 광의로는 자원봉사뿐 아니라 사회발전과 선진시민 양성을 위해 각종 활동들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자원봉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봉사는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협의의 사회봉사 즉 자원봉사라는 의미로 사회봉사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자원봉사로 간주하기로 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국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자원봉사(volunteering)는 재정적 또는 물질적 이득에 의해 동기유발됨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해지는 사람들의 실천적 활동을 말한다.(wikipedia, 2009)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이타적 활동(altruistic activity)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선을 증진시키거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의도되었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없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적 상호부조는 경제를 재건시키는 데 중요한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하며, 국가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정부는 자원봉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2005. 8. 4. 법률 제7669호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여 2006. 2. 5.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입법적 정의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교회자원봉사에 원용하면 교회자원봉사란 기독교인이나 교회 등 기독교단체들이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재능 그리고 노력을 제공하는 기독교적 행위를 말한다. 즉, 교회자원봉사활동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우리들의 이웃 형제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실행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웃사랑 실천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그러나 동법의 기본방향에서는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향설정은 찾아볼 수 없다.

본래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히브리어의 아보다, 헬라어의 디아코니아, 희랍어의 두류오(노예가 되는 것, 섬기는 것), 레이투르기아스(성직자로서, 자선적으로, 전례상으로 바치는 봉사) 등이 있다. 성서의 봉사에는 세속적 봉사, 예배를 통한 봉사, 영적 봉사가 있다. 첫째, 세속적인 봉사이다 세속적인 봉사로는 가정적인 봉사로서 식탁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봉사, 노예의 봉사, 압제자를 위한 봉사, 군사적 봉사, 소득에 대한 대가로 바치는 봉사 등이 있다. 둘째, 예배를 통한 봉사이다. 예배를 통한 봉사에는 제사장직, 장막, 제단, 성전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진다.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들로부터 여호와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오늘날 예배행위가 service라고 불리고 있으며 회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service(시설, 기구)로 불렸다. 셋째, 영적봉사이다. 계시가 진전되자 봉사는 수평적인 활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20:28) 예수는 이 본을 자신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극적 사건을 통해 보이셨다. 영적인 봉사는 그리스도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섬기는 것이다.

자원봉사 또는 자원복지는 영어의 voluntarism 또는 volunteerism을 우리말로 표현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voluntarism과 volunteerism을 구분해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voluntarism은 the principle or practice of supporting churches, schools, hospitals, etc, by voluntary contributions or aid instead of relying on government assistance 또는 any policy or practice based

on voluntary action으로 정의 내려져 있다. 즉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발적인 기부나 도움을 줌으로써 교회, 학교, 병원 등을 지원해 주는 실천활동이나 원칙을 말한다. volunteerism은 voluntarism과 통용되기도 하고 the policy or practice of volunteering one's time or talents for charitable, educational, or other worthwhile activities, esp, in one's community로 정의되어지고 있다(Flemer,1987:213).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자선적, 교육적 또는 다른 가치있는 활동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실천활동이나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voluntarism과 volunteerism은 사전적 정의에 있어서 의미상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자원봉사는 외부로부터의 조직적 개입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대부분 물질적 보상 없이 행해지는 활동이기에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기 쉽고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김기원, 2009)

자원봉사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방법을 통해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자원봉사활동(volunteerism)이란 어원상 voluntas(자유의지)+eer(사람)의 복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려는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강제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개인적 집단적 행위와 활동으로 이타주의, 헌신, 자유의지, 학습, 경제적 무보수성, 조직성, 심리적 이득, 희생, 과정성, 생활성, 공공성, 복지성, 개척성, 계속성, 연대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동배, 2005:76-85, 김익균 외, 2005:17-28, 김영호,1997:41-54.김범수, 2001:26-35, 서울특별시,1995:14-47, 이성록,1996:48-83, 한국사회복지연구회,1997:18-34.)

자원봉사활동 가운데 예상되는 사고나 물리적 위험의 존재는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과정에 나타나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또 사고발생시 이를 처리할 적절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노력이 1980년대 미국의 부쉬 행정부에서 각 주정부를 위한 표준 자원봉사법(Model State Volunteer Service Act)이 제정되었고 이를 참고로 각 주에서 자원봉사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Laws)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 상의 사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준비되었기 시작했다(Carter,1996:5-14).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인 전국원로봉사단체(National Senior Service Corps)에서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보살피 주는 대리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원로동료프로그램(Senior Companions), 그리고 지역박물관 관람을 안내하거나 성인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봉사를 하는 은퇴원로자원봉사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s)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약간의 보수가 제공되고 있다(National Senior Service Corps,1997:1-7). 미국 전역에 걸쳐 2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430개의 봉사프로그램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메리코어(AmeriCorps)라는 사회봉사제도에서는 1년간(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봉사를 마치게 되면 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교육비에 사용될 수 있는 4,727달러에 상당하는 교육바우처(education voucher)를 제공받는다. 아메리코어 멤버들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분야, 공공안전분야, 인간봉사분야(사회복지분야), 그리고 환경분야 가운데 한 분야에서 봉사하게 된다(AmeriCorps:1997). 인간봉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85%는 인건비인데 그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였고 잘못 활용된 적이 많다. 따라서 초기교육, 훈련 및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조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감사를 표하는 자원봉사감사행사를 열거나, 식사에 초대하거나, 자원봉사 경험담을 듣거나, 작은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자원봉사 보상체계(reward system)를 마련하기도 한다(Rapp & Poertner,1992:235-237).

III.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는 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현황은 기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되어진다. 여기서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파악해본다.(행정안전부, 2007:3-9)

<연도별 센터 운영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운 영 형 태			
	계	직 영	위 탁	법 인
'03. 12	248	140	99	9
'04. 12	250	137	102	11
'05. 12	250	146	95	9
'06. 12	248	151	83	14
'07. 12	248	159	70	19

2007년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시도, 시군구에 1개소씩 총 2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159개소로 가장 많고, 위탁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70개소,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19개소이다.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단위 : 명)

구 분	'01. 12	'02. 12	'03. 12	'04. 12	'05. 12	'06. 12	'07. 12
등 록 인원수	1,166,601	1,343,693	1,489,009	1,722,823	2,083,704	2,681,193	3,279,911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3,279천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56.3%로 남성보다 약 13%가 많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2.3%로 가장 많고, 40대가 21.9%, 50대가 15.3%로 그 다음이었다.

<자원봉사자 직업별 현황>(단위 : 명)

연도별	총 계	직 업 별								
		주 부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	자영업	퇴직자	대학생	중고생	기 타
'03. 12	1,489,009	430,921	132,446	41,992	91,372	161,731	35,829	84,057	322,482	188,179
'04. 12	1,722,823	455,042	164,270	34,556	82,431	165,373	26,770	111,762	352,463	330,156
'05. 12	2,083,704	502,577	197,828	43,413	100,827	173,199	35,027	120,459	433,299	477,075
'06.12	2,681,193	558,257	214,130	63,945	73,409	181,468	71,223	133,647	504,300	880,815
'07.12	3,279,911	532,565	287,325	98,350	96,403	161,784	31,298	189,289	563,409	1,319,488

자원봉사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중고생이 17.2%로 가장 많고, 주부가 16.2%, 회사원이 8.8%, 대학생이 5.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자의 순이었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현황>(단위 : 명)

연도별	총 계	분 야 별					
		사회복지 의료시설	환경보호	교통질서	구조구급 재해복구	공공기관	기 타
'03. 12	5,118,720	1,863,027	784,855	646,824	482,057	325,103	1,016,854
'04. 12	5,584,609	1,780,605	1,192,733	697,554	326,666	469,939	1,117,112
'05. 12	7,634,183	3,018,535	1,632,872	688,762	245,749	619,638	1,428,627
'06. 12	10,314,903	2,989,688	1,054,025	646,520	221,039	669,983	4,733,648
'07. 12	12,900,984	3,536,252	1,366,110	1,028,529	207,469	753,449	6,009,175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에서 봉사한 경우가 전체의 27.4%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봉사한 경우가 10.6%, 공공기관이 5.8%로 그 다음이었다. 등록자들은 평균 11.1회 활동했으며, 50시간이상 봉사자는 등록자의 6.2%이었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록 현황(2008.12.31. 현재) >

구분	총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903,777	92,902	96,520	66,280	98,626	41,019	83,283	53,995	116,123	52,170	85,722	21,576	30,927	32,166	32,468
	100%	10%	11%	7%	11%	5%	9%	6%	13%	6%	9%	2%	3%	4%	4%
서울시	22,794	558	1,161	1,872	5,999	964	1,967	890	1,667	1,433	1,882	797	842	1,799	963
종로구	17,124	2,228	2,864	1,096	1,577	514	1,028	792	1,563	1,073	1,556	489	608	966	770
중구	12,384	905	819	1,210	1,720	1,029	976	957	964	959	949	291	369	602	634
용산구	20,610	657	745	937	1,384	1,272	1,819	1,719	2,628	1,658	2,323	768	914	1,991	1,795
성동구	35,083	1,287	1,655	7,568	5,314	1,488	4,430	1,894	4,562	1,880	2,340	571	689	704	701
광진구	17,738	139	135	432	928	554	4,591	887	4,730	906	1,911	374	622	844	685
동대문구	34,103	904	1,198	1,287	2,177	1,303	3,272	2,672	4,854	2,737	3,624	1,178	1,410	3,396	4,091
중랑구	49,220	8,950	7,688	3,390	4,662	1,326	2,666	2,353	5,118	3,017	4,216	943	1,278	1,853	1,760
성북구	42,610	5,636	5,513	3,593	6,060	1,323	3,469	1,432	4,106	1,997	3,525	1,060	1,398	1,851	1,647
강북구	15,156	463	905	631	1,464	768	2,101	1,104	2,268	1,134	1,986	376	698	551	707
도봉구	26,051	1,988	2,123	1,057	2,145	905	3,056	1,504	4,840	1,477	3,359	451	1,044	839	1,263
노원구	40,172	6,142	6,106	1,836	2,785	932	5,906	1,663	7,899	1,638	3,062	421	611	499	672
은평구	38,839	4,420	5,137	2,592	2,952	1,472	4,509	2,019	5,715	1,987	3,377	752	1,214	1,220	1,473
서대문구	26,935	2,770	2,902	1,202	2,399	828	2,581	1,528	3,069	1,816	2,594	795	1,088	1,717	1,646
마포구	25,293	2,111	3,087	1,542	2,583	1,356	3,566	1,396	3,322	1,141	2,056	450	756	827	1,100
양천구	35,989	5,166	5,482	1,481	2,776	1,011	2,449	1,966	5,298	2,039	4,443	650	1,208	821	1,199
강서구	89,325	12,596	12,167	11,854	16,524	4,733	5,897	3,828	7,344	3,022	5,437	1,840	2,792	552	739
구로구	29,873	1,968	2,351	1,461	2,838	1,077	2,532	1,706	4,293	1,748	4,041	873	1,458	1,656	1,871
금천구	16,070	744	894	853	1,458	488	1,262	1,202	2,524	1,380	2,193	502	779	933	858
영등포구	31,707	2,500	2,541	1,224	2,237	1,952	3,105	3,024	4,079	2,532	3,357	794	1,113	1,537	1,712
동작구	38,533	3,400	2,791	4,520	5,854	1,785	3,757	1,254	4,496	1,355	3,917	1,601	3,358	209	236
관악구	35,977	7,325	7,875	2,777	5,021	1,337	1,773	1,674	2,347	1,448	1,993	408	743	457	799

서초구	36,748	4,001	4,278	2,885	4,565	3,044	3,831	2,702	4,230	1,671	2,803	719	1,031	333	655
강남구	47,118	4,897	4,299	3,469	6,164	3,873	4,626	2,966	6,434	1,695	3,744	1,908	1,573	777	693
송파구	88,214	7,565	7,968	4,321	4,602	3,885	5,202	8,825	13,196	8,550	11,931	2,005	2,465	4,615	3,084
강동구	30,111	3,582	3,836	1,190	2,438	1,800	2,912	2,038	4,577	1,877	3,103	560	866	617	715

출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2009).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의 참여율이 전체 903,777명의 21%에 해당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49세 사이가 19%, 20-29세 사이가 18%의 순서로 많았다.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3%에 달하였다. 성별로 분석하면 40-49세 사이의 여성이 13%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89,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82,14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V. 교회사회봉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1. 사회봉사 특성으로서 전문성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제시하는 사회봉사의 특성은 자발성, 이타주의, 비대가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자아실현, 학습성, 헌신성, 공공성, 조직성, 협동성, 민간활동, 지역연대성, 전문성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봉사는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 아래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공동체에 제공한다는 자발성, 자신의 이익을 우선 도모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우선 도모하는 이타주의, 금전적 보수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대가성, 일정 기간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지속성,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비정파성, 특정 종파를 강요하거나 편향되지 않는 비종파성,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였다고 만족해하는 자아실현성, 봉사를 위해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학습성, 봉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헌신성,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성,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모집·교육·배치하는 조직성, 봉사 참여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협동성,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지역연대성, 실제적인 활동이 민간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는 민간활동, 봉사는 대상과 영역에 따라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문성을 들 수 있다.(김범수, 2001:28-31, 김익균 외, 2005:19-23, 법무부, 2009,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2009)

이러한 특성을 논함에 있어 전문성은 언급이 되지 않거나 언급이 되더라도 나중에 언급이 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봉사에서 전문성이 사회봉사의 특성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봉사가 영역에 따라 일반성과 특수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성으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봉사 전문성 제고 방안

사회봉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은 크게 교육-훈련대안, 전문가 참여대안, 법적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원봉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시키는 대안이다. 둘째, 사회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자원봉사가 전문적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대안

자원봉사활동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봉사의 대상이나 욕구의 내용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자원봉사는 크게 ‘기술-기반 자원봉사(skills-based volunteering)’와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필요-기반 자원봉사(needs-based voluntee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 교육, 응급구조와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술-기반 자원봉사’인 반면, 전통적인 자원봉사(traditional volunteering)는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 행해지며,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대응과 같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on an as-needed basis) 수행된다.(wikipedia, 2009)²⁾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자원봉사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사회봉사의 전문성 제고는 일반적인 사회봉사와는 달리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즉, 기독교적 사회봉사 전문성을 개발하고 확립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은 단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이론교육이자, 실천적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하는 경험교육이기도 하다.(남기철, 2007:200-222) 자원봉사교육·훈련을 기본교육, orientation, 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본교육

기본교육은 일종의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항을 교육한다. 주로 자원봉사활동가들이 가져야 자세나 유의사항에 관한 것으로, 자원봉사 초보자나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하다. 기본교육의 내용은 봉사자 자신이 가져야 할 자세나, 자원봉사 활동과 봉사대상자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그에 대한 성서적 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봉사활동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교회는 성서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의 사회봉사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땅에 사는 동안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성화의 한 과정임을 가르쳐야 한다.

a)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관한 교육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교회사회봉사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김기원, 2009:43-46)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교회사회봉사와 밀접한 견해는 관계론적 견해(relational view)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

2) 미국의 경우 전통적 자원봉사는 시간당 \$10-2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기술기반자원봉사는 시간당 \$40-\$500의 가치간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상이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참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의 대표적 학자인 브룬너(Emil Brunner)는 형식적 형상과 실질적 형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적 형상은 이성적 존재, 책임있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상이란 인간의 응답하는 행위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실질적 형상이 나타난다. 바르트(Barth)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 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4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 인간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서로서로 말하고 듣는다.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행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창조 이래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It was very good)……”(창1:27-31) 최초로 피조된 인간 속에는 악이 없으며 죄가 없고 의로우며 하나님 자신의 존엄성과 유사한 존엄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인간의 운명에 새로운 재앙이 생기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貫盈)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창6:5-7)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최초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어지

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비록 죄로 인해 본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통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실천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로운 삶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성서적으로 칼빈의 성화론에 근거시켜야 한다. 칼빈은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성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칼빈은 ‘죄인의 값없이 의롭게 되는 칭의’와 ‘중생한 자의 칭의’를 구별한다. 중생한 자는 언제나 불완전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죄 용서를 필요로 한다. 죄인의 값없이 의롭게 되는 칭의에서 행위는 고려될 수 없지만 나중의 중생한 자의 행위는 잘 고려될 수 있다. 중생한 자의 칭의는 성화를 전제로 한다. 성화의 측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평생동안 우리는 회개를 실천하여 성화를 이룬다.

칼빈은 성화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자기 기만이라고 주장한다. 칭의의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양자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관계로 결합되어 있다.(최태영, 2003:150-5.)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조명시키는 자를 구속하시며, 그가 구속하시는 자를 칭의하시고, 그가 칭의한 자를 성화시키신다. 칼빈에 따르면 성화란 평생의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성화란 첫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여정을 통하여 성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원종천, 1996:43-47.) 칼빈에 의하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선행을 만들어 낸다. 선행은 필연적 행위이며 신앙의 열매이다. (김병환, 2006:184-5.)

성화의 구현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을 통하여, 교회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고백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순종하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일 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성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평생에 걸쳐 실천되어야 하는 봉사인 것이다.(김기원, 2009)

b)인간존중사상에 관한 교육

교회의 사회봉사는 또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빈민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병자이나, 이주노동자나, 옥에 갇힌 자나 그 누구든지 모두가 고귀한 생명이라는 생명존중사상이나 인간존중사상은 교회사회봉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육의 세계를 관장하는 우리 정부가, 비록 기독교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국가의 헌법 내용을 답습하여 제정한 우리 헌법에도 인간존중사상은 헌법상이 주된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천부인권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인격과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적 시민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개인은 개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가치의 근원이 된다. 인간의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는 생명권, 즉 생명에 대한 권리로 이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생명권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인 생명권과 국가에 대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명권으로 구성된다. 이러

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자기결정의 원리와 유사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법적으로 근본규범성, 기본권성, 반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보장은 복지국가주의의 근본규범을 이루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근본질서로 단순히 입법방침을 규정한 프로그램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한 최고의 근본규범으로서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따라서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며, 국가질서의 요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법해석상의 최고기준으로 원칙규범 내지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근본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루며,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도 전면 개폐할 수 없는 불가침 규정이다. 둘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일반적인 인권으로서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에 대해 방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적극적으로는 보호청구권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전반을 의미하는 주기본권(主基本權)의 성격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이를 총칭하여 ‘행복추구권’이라 판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반전체주의적(反全體主義的) 원리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주체는 헌법 제10조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국적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무국적자도 그 주체가 되며,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또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향유는 정신적·신체적 상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빈민이건 부자이건,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아동이건 노인이건, 알코올중독자나 범죄자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인정된다.

헌법상 주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실정헌법상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기독교국가인 독

일의 바이마르헌법(독일공화국헌법, 1919)이다. 동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노동에 관한 권리, 국영보험제도, 생계보호, 중산계급의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의 효시가 되었으며, 그 후 세계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이 이를 뒤따르게 되었다(김철수, 2001). 우리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하여 제119조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평한 소득분배를 통한 사회형평을 기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김기원, 2009:114-132)

c)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먼저 자원봉사를 소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의무임만 강조하지 말고 자원봉사에 대한 권리도 있음을 교육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은 국제자원봉사운동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IAVE)의 ‘자원봉사에 관한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Volunteer)’의 내용에 나와있는 자원봉사권리나, 자원봉사자 역할이나 자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자원봉사에 관한 보편적 선언’에서 IAVE는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기초요소(Volunteering is a fundamental building block of civil society.)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사람은 자원봉사를 할 권리(right to volunteer)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모든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동은 문화 · 인종 · 종교 · 연령 · 성별 그리고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IAVE는 이 보편적 선언에서 자원봉사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모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i)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 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ii)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주는; iii)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iv)전세계적 협력을 통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는 창조적이고 중개적 힘임을 선언한다.(All volunteers to proclaim their belief in volunteer action as a creative and mediating force that: builds healthy, sustainable communities that respect the dignity of all people; empowers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s as human beings and, thus, to improve their lives; helps solve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builds a more humane and just society through worldwide cooperation.)”

자원봉사활동은 서비스-지향적 자원봉사, 이슈-지형적 또는 대의명분-지향적 자원봉사, 성취자/자기표현적 자원봉사, 직업적/이익추구적 자원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역할은 남을 도우는 전통적인 개인 활동으로서의 서비스활동, 변화와 권익대변, 시민참여 활동, 거버넌스, 기금조성 활동 등이 있다. 자원봉사자의 유형은 행정 자원봉사자, 조사 자원봉사자, 권익대변 자원봉사자, 연계 자원봉사자,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가 있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3:17-18)

자원봉사자가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자의 자세도 교육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하고 처음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말은 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자신의 언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한다;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은 성실히 하며, 활동시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양심적이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2009)

(2)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은 특정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기관에 대해 이해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봉사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봉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훈련은 봉사에 초점을 두며, 대부분 봉사기관의 담당자들이 실시한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일종의 합류과정(joining-up process) 종종 신입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대상자, 봉사프로그램, 봉사활동 절차, 혜택과 대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규칙과 규정에 대해 알려주며, 봉사기관의 정책과 관례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조직의 구조와 역사, 봉사자의 직무, 봉사 시간, 안전규칙, 상해보험 등에 관한 설명도 포함된다.(Schuler, 1981:203-4)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만일 가치, 규범,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적당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봉사기관과 봉사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3) 훈련

자원봉사자 훈련은 특수한 자원봉사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훈련의 종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신규 자원봉사자 훈련, 자원봉사중간지도자 훈련, 자원봉사중간지도자 훈련, 자원봉사관리자 훈련 그리고 자원봉사전문가훈련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훈련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식적 훈련, 코칭, 상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련과정은 대상자에 따라 개별화시켜 전문화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자원봉사자 훈련은 자원봉사활동신청자에 대해서는 훈련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 동기요인, 자원봉사활동 개념 및 필요성, 활동내용 설명 등과 같은 기초훈련을 실제 활동 측면에서 실시하고, 기초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훈련대상을 구분하여, 예를 들면, 청소년, 학부모, 직장인,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훈련 과목과 내용을 편성하고 훈련시간과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자원봉사중간지도자 훈련은 자원봉사팀을 이끌며 자원봉사자들을 지도하고 기관이나 자원봉사관리자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의사전달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리더로서

함양해야 할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인력관리, 후원자관리, 집단 형성과 유지, 인간관계, 지역사회 자원동원 등을 훈련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원봉사관리자훈련은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계획 수립, 직무설계, 위임과 조정, 인력 모집·교육·배치, 지도감독, 평가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미국에서 자원봉사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관리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봉사관리협회(Association of Volunteer Administration, AVA)는 자원봉사관리자가 지녀야 할 핵심능력으로 i)직업 전문성에의 헌신(윤리강령 수용, 전문가 책임성, 리더십), ii)기획능력(조직에 대한 이해, 기획과정 등), iii)자원개발 및 자원관리(자원봉사프로그램 관리, 위기관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 직원-자원봉사자 관계, 재정관리 등), iv)책임성(평가하기, 분석하기, 보고하기 등), v)관점 및 대응성(문화역량, 세계적 자원봉사 전망, 자원봉사관리의 변화, 전략적 관계 등)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보고, 교육과정을 이러한 핵심능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3:22-57)

훈련방식으로는 공식적 훈련, 코칭, 상담이 있다.(남기철, 2007:216-219) 첫째, 공식적 훈련은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업무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훈련으로 자원봉사자업무기능에 관한 내용과 해당 업무에서 각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 집체식 교육훈련으로 강의, 토론, 세미나, 사례발표, 관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질 수 있다.

둘째, 코칭(coaching)은 직무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습득하도록 실제 행동적 연습과 체득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배워야 할 기술이나 행동에 대해 시범을 보여주고 이를 자원봉사자가 시도해보도록 하고, 이를 관찰한 후 환류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주는 방식이다. 코칭은 흔히 EIAG라는 원칙을 따른다. EIAG는 경험과정-확인과정-분석과정-일반화과정으로, 여기서 E(Experience)는 직접 보거나 접촉하도록 하는 경험과정, I(Identify)는 경험과정을 통해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확인과정, A(Analyze)는 확인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나 결과상황에 대한 분석과정, G(Generalize)는 다른 유사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규칙을 형성하는 일반화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코칭의 훈련내용은 직무교육훈련(Job Instruction Training, JIT)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JIT는 ‘선발-훈련자의 설명 및 시범-피훈련자의 실시-훈련자와 피훈련자간의 환류(feedback)’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훈련이 이루어 진다.

셋째, 상담(counselling)은 일반적인 치료적 의미가 아니라 직무개선을 위한 자기학습적 훈련방법이다. 여기서 상담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원조해주는 훈련방법이다. 상담은 ‘문제의 확인-문제 원인의 확인-문제해결대안 형성-대안간 비교-최적 대안 채택-평가-환류’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문가 참여 대안

자신의 과거 경력이나 현재 종사하는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봉사분야에서 잘 발휘할 수 있어 봉사를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문가(professional)란 전문적인 교육훈련에 기반을 둔 직업의 구성원으로, 전통적으로는 전문영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때로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나 아마추어들에게 전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과 같은 서구국가에서는, 전문가란 용어는 창조적이고 지적으로 도전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상당히 일과 관련하여 자율성을 갖고, 경제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안락한 보수를 즐기며 살아가는 고도의 교육을 받고, 대부분은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의미한다.(www.wikipedia.org)

일반적으로 전문가로 인정받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i)학위 자격-박사학위 소지자; ii)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야에서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 iii)전문직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 iv)창조, 생산, 서비스, 자문, 연구, 행정,

마케팅과 같은 고도의 질적인 일; v)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전문가 윤리, 행동 그리고 근로활동.

(1) 전문성 기부- 프로보노 서비스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회사회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익전문가사회봉사인 프로보노서비스이다. 프로보노의 원어인 'Pro bono publico'는 통상적으로 Pro bono로 줄여서 사용되는 라틴어로 영어의 “공익을 위하여(for the public good)”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공공 봉사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전문적인 노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지며, 통상적으로 법률전문직분야에서 사용되어져왔으나 마케팅, 기술, 전략자문,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프로보노 봉사활동은 미국 등 선진국의 대형 로펌과 경영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이미 널리 확산돼 있다.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달리, 프로보노서비스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wikipedia, 2009) 프로보노는 넓은 범위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봉사와는 달리 특정한 대상과 분야에 한정된 도움을 제공할 수 밖에 없지만, 봉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로보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나 전문가 집단과 프로보노서비스에 관해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프로보노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미국의 ‘아시아계미국인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금(AALDEF ;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는 미국내 아시아인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고용차별·인신매매 등의 소송과 법률교육, 교육평등에 대한 정책운동 등 적극적 조치(Affirmation Action)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데, 고용차별과 인신매매 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는 800여명의

로펌변호사를 대상으로 메일링을 하고, 그러면 이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직접 결합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AALDEF 2009)

프로보노서비스가 실제 제공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MOU를 활용한 경영자문 프로보노 봉사

SK그룹은 임직원들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회적 기업 전문 자원봉사단인 프로보노봉사단을 해외 경영학 석사(MBA) 소지자, 미국 변호사, 국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임직원들로 구성된 프로보노 봉사단으로 구성하였다. SK 프로보노는 일반적인 기업 자원봉사단과 달리 법률 재무 인사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에 참여하여 NGO나 사회적 기업에 온·오프라인으로 법률, 재무·마케팅 등 경영컨설팅은 물론 요리 사진촬영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SK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사내 변호사와 회계 전문 인력이 법률 자문과 세무 상담을 원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봉사단체에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SK의 경우 효율적인 프로보노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 수요 파악과 연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SESNET)와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소개받기 위해 일종의 양해각서인 업무협력을 체결하였다.(조선일보, 200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도 노동부, SESNET와 '사회적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결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기업·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 법인에서는 Help Desk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회계, 세무 등에 대한 온라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b)법률 프로보노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들은 2년간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연수교육을 받는데 이들은 사회봉사연수를 받는다. 사회봉사

연수에는 근로봉사연수와 법률봉사연수가 있는데 법률봉사연수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무상으로 각종 법률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법률상담봉사연수는 사법연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 사회봉사활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사법연수원, 2009)

미국 변호사 협회 윤리 규정은 일년에 최소 50시간을 프로 보노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매년 로펌의 공익활동에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프로보노 활동 순위는 로펌의 지명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 내 50대 로펌의 대부분이 프로보노 활동 순위 50위권과 겹친다. 프로보노 활동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사회적 인식도 좋아져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도 한 이유다.

(c) Target의 가정폭력 hot line 지원 봉사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Target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증가와 더불어 미국 내 가정폭력 관련 유일한 핫라인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낙후된 설비와 장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Target의 기술지원 부서는 Target의 계열사 중 하나인 인테리어 회사 Commercial Interiors와 협력하여 오래된 전기통신 기술을 보수하고, 특히 청각장애, 시력장애 등 몸이 불편한 장애인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으로써 미국 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d) 외국인 자원봉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글로벌봉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이 25만명을 넘는 시대에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글로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 서포터즈들은 외국인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외국어 가능한 한국인 봉사자들로 외국인에게 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신청시 친절한 안내는 물론, 봉사활동처까지 동반하여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외국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회복지분야 활동(30%)을 가장 선호하였고, 외국어 교육(19%), 환경봉사활동(1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봉사(서울시내 7곳 시설 방문봉사), 외국어교육봉사(저소득가정 아동 대상 원어민 영어교육), 환경봉사(한강, 설악산, 북한산 정화활동), 문화나눔봉사(장애인과 판소리공연 관람, 지역아동센터 방문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2009) 이 가운데 외국어교육봉사는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특히 English Divide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2) 자원봉사연계사업

교회는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봉사희망자간을 연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와 연계가 될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LETS를 들 수 있다.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란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녹색달러, 영국에서는 페이버, 쉘, 오크, 아콘(Acorn), 솔런트, 호주에서는 카우리즈, 에코즈, 타이즈, 자크, 마우스, 미국에서는 타임달러(time dollar), 아워즈(hours), 우리나라에서는 FM(Future Money)등으로 불리우는 일종의 지역거래교환제도이다. 이는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 대신 지역내에서 회원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을 만들어, 화폐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현금이 없이도 지역공동체내에서 회원간의 상호봉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LETS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지역화폐형태의 LETS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 LETS를 운영할 사무국을 만든다.
- ii)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가입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역내 회원간에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만든다.
- iii) 사무국은 지역화폐의 가치를 시중화폐와 동일하게 하여 잔액이 0인

LETS 계좌를 처음 가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개설하여 준다.

iv) 회원들은 자신이 제공 가능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물품의 목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지면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v) 필요시 언제라도 한 회원이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원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내역은 은행계좌와 같이 관리된다.

vi) 은행계좌와 유사하게 타인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자신이 이용한 만큼은 자신의 계정에서 (-)가 되고,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만큼 자신의 계정에 (+)가 된다.

vi) 거래가 성립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LETS의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회원간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e-mail이나 소식지 형태로 발송한다.

vii)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viii) 지역화폐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므로 이자가 없다.

LETS는 회원간 거래 내용을 관리해 주는 직원과 컴퓨터와 같은 적은 인력과 장비만 갖추면 교회와 같은 조직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회는 자원봉사 분야에서 LETS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는 LETS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사회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로 건설할 수 있다. 즉, 교회는 자원봉사를 위한 LETS는 지역사회 성원들이 자신이 여력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해두면 필요한 때 자신이 과거에 봉사한 만큼을 다른 자원봉사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원봉사 품앗이 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회는 신자들이나 지역사회주민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봉사내용과 시간을 교회의 자원봉사계정에 기록하여 저축하도록 하고, 나중에 자원봉사를 저축해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봉사시간만큼의 봉사를 교회에 요청하면 교회는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찾아 보내 도와준다.

LETS의 관리인으로서 교회는 먼저 자원봉사LET의 회원을 모집하고,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영상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다. 회원간의 거래 내용(계정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계정은 0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 계정이 흑자(+)로 산정되어 적립되고, 반면 도움을 받은 다른 사람의 계정은 적자(-)로 산정되어 정리 간다. 도움만을 받은 사람의 계정은 적자가 계속 늘고, 봉사만을 해준 사람의 계정은 흑자가 계속 늘어 교회의 LETS관리가 자원봉사신용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연결쇄(linking pin)의 역할을 한다.(김기원, 2009)

3)사회봉사 전문화를 위한 법적 장치

사회봉사의 전문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법안이 마련되거나 기존의 법령에 관련 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능한 대안은 현재 존재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사회의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사회봉사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 관련 법안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법률 제766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러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한 업무도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

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자원봉사단체는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등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법무부, 2009)

그러나 이 법에는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의 기본방향 조항과 동법 제10조의 자원봉사 장려 조항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2조 5호와 제11조 4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p><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 ></p>
<p>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p>
<p>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5. 특수 분야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p>
<p>④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입법 취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려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자원봉사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향후 이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자원봉사 관련법들이 추가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가칭 ‘사회전문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1973년에 국내자원봉사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을, 1990년에는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4월 11일 공법 제 111-13호로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자원봉사법(The Edward M. Serve America Act)을 제정하였다. 케네디 미국자원봉사법은 모든 연령층의 미국인들이 자원봉사할 기회를 확대하고, 비영리 분야를 강화하고 혁신시키며, 봉사기관의 경영과 비용-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내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학습봉사(Learn and Serve America) 지원, 혁신적인 봉사프로그램 연구, 미국 자원봉사단체(AmeriCorps)의 확대 및 지원, 장애를 가진 자의 참여, 국가 봉사 신탁, 사회혁신기금 확대, 자원봉사세대기금 조성, 미국 빈민지구 파견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인 VISTA, 노인봉사단(Senior Corps)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S. Congress, 2009)

VI. 나가는 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웃 사랑의 역사는 구약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의 의무로서 이어져 오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이웃에 대한 의무는 상당 부분이 성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기초하고 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간에 떡을 떼는 공동식사를 통한 공동체 교제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성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 졌다.

교회의 자원봉사는 일반사회의 자원봉사와 그 대상이나 활동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실천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교회의 자원봉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근본 목적하에 시작이 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봉사활동의 결과를 평가하

고, 이를 환류시켜 보다 성서의 가르침에 온전한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속성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성과 특수성은 상호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자원봉사의 대상과 영역에 따라서는 일반성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반면 사회복지나 교육 그리고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논제가 이 논문에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분야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사회봉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사회봉사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육-훈련대안, 전문가 참여대안, 법적-제도적 대안을 들 수 있다.

첫째,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대안으로는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 상담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기본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교회사회봉사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해 교육하여야 하고, 일생에 걸쳐 우리가 이룩해야 할 성화의 한 과정으로서 교회사회봉사의 의미를 깨우쳐야 한다. 또한 기독교의 생명존중사상의 맥락에서 인간존중사상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에 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전훈련으로 기관에 대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훈련은 자원봉사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훈련방법으로는 공식적 훈련, 코칭, 상담을 들 수 있다. 훈련과정은 대상자에 따라 개별화시켜 전문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중간지도자, 자원봉사관리자들이 각각의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은 일반 상담과는 달리 자원봉사자들이 직무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자기학습적 훈련방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 참여대안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pro bono 봉사이다. ‘공익을 위하여’란 의미의 pro bono 서비스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전문가의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사회봉사서비스이다. 이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LETS와 같은 연계사업대안도 전문가들이 적절히 연계된다면 회원간 상호봉사를 통하여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대안은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면 사회봉사의 전문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만일 새로운 입법이 어렵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봉사에 관한 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창세 이래 하나님의 명령이며, 믿는 자들의 의무이며, 거듭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한 과정이다.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교육과학사, 2009.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 김기원, 2009, 칼빈과 사회복지 그리고 복지국가론,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서울장신대학교, 2009.
-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2005.
- 김범수, 자원봉사의 이해, 학지사, 2001.
- 김병환,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본 갈빈 연구, 「조직신학연구」, 제8호, 2006, pp:184-5.
- 김익균 외, 자원봉사론, 교문사, 2005.
- 남기철, 자원봉사론, 나남, 2007.
- 최태영, “선행에 대한 갈빈의 이해”, 「칼빈연구」, 창간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150-5.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2003, pp:17-18
- Schuler, Randall S, Personne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West Publishing Company, Los Angeles, 1981, pp:203-4.
- wikipedia, 2009
- www.opencongress.org, 2009.



발제2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공적체계 구축

정 무 성 /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교회 사회봉사의 공적체계 구축

정무성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선진 복지사회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도 선진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 및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이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완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중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예산활용방향정립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복지단체의 책임과 함께 중간기관의 참여와 역할 확대 필요(교회의 역할 부분)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저급한 물질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야 함

복지사회개념과 변화



-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시민의 역할 강조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살기 운동의 필요성
- 시민으로서의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사회복지개념의 변화추세

- ① 잔여적(residual) 복지 →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
→ 개발적(developmental) 복지
- ② 자선(charity) → 시민권(citizen right)
- ③ 선별적(selective) 대상 → 보편적(universal) 대상
- ④ 최소(minimum) 보장 → 적정(optimum) 보장
- ⑤ 개인변화(individual change) 목표 → 사회개혁(social reform) 목표
- ⑥ 자원(voluntary) 봉사 → 정부(public) 책임
→ 관·민 파트너십(partnership)
- ⑦ 빈민복지(welfare for the poor) → 복지사회(welfare society)
- ⑧ 원조(help) → 자립(self-help), 자활

MB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 1) 조세유인책 활용
- 2)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강화
- 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조
- 4) 근로연계복지 강조
- 5) 현금 또는 voucher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 6) 종교계와 기업의 참여 강조

사회복지의 기본관점

① 환경 속의 개인
(person-in-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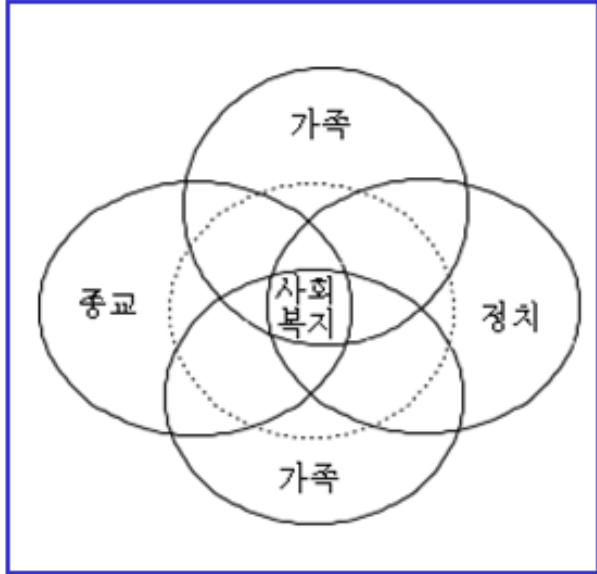
② 정상화
(normalization)

③ 독립생활
(independent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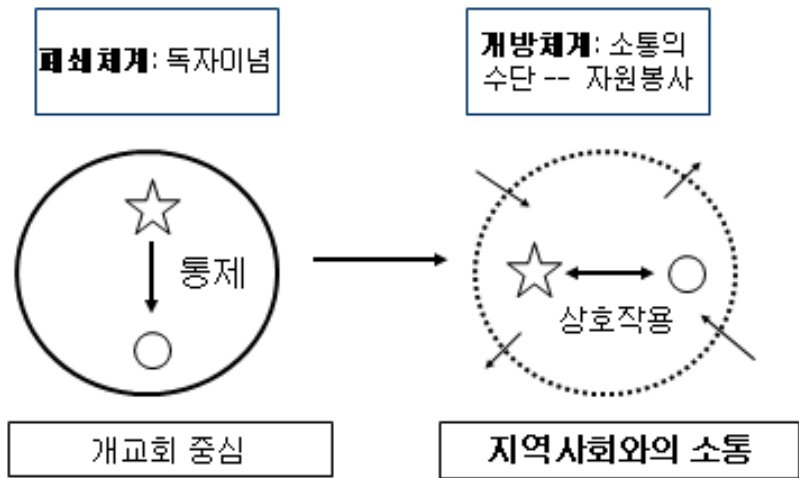
④ 개방체계
(open system)

종교의 사회적기능: 사회통합

- 가족 :** 사회화의 기능
- 경제 :** 생산, 소비 분배의 기능
- 정치 :** 사회통제의 기능
- 종교 :** 사회통합의 기능
- 사회복지 :** 상부상조의 기능



사회체계의 변화와 소통의 필요성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자원봉사의 사회적 기능

(1) 사회의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회복

1,2차 대전 이후 거대해진 복지국가에 대한 반성과 70년대 들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주권자로 회복, 도덕적인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건설에 기여한다.

(2) 사회적 생산성(social productivity) 향상 -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엑스트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가용자원을 완전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사회적 개방(social openness)에 기여

자원봉사자의 개입으로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조직이나 개인들이 폐쇄성을 벗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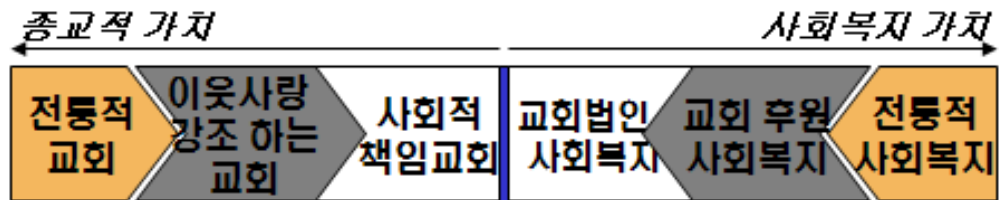
기독교인 자원봉사의 의의

(1) 개인적인 차원: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점차로 자신의 삶을 신앙적으로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들 수 있는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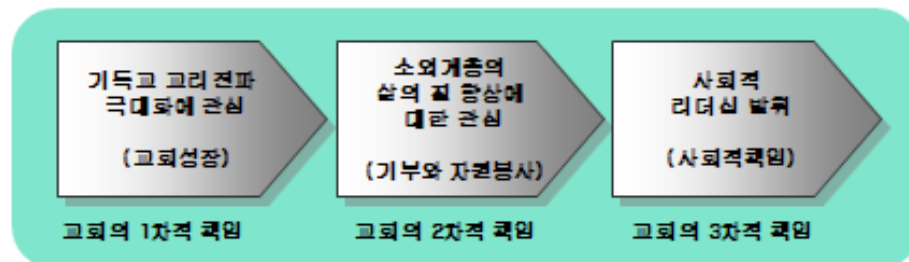
(2) 조직 차원: 교회의 이미지 개선 및 사회복지 활동의 인간화, 내부 결속력 강화, 교회사랑 증가.

(3) 국가, 사회의 차원: 공적인 양심의 수호자로서 사회변화와 사회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교회와 사회봉사의 연계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발전과정



우리나라 기독교사회복지의 문제점

- 1) 기독교 사회복지자원의 결집력/연계성 부족
- 2) 비효율적 자원관리 - 외부 자원개발 미흡
- 3) 선교 수단화됨 위한 지나친 물량공세
- 4) 국가사회복지 제도화와 변화에 대응 미흡
- 5) 영성과 전문성의 갈등

교회사회봉사의 실천 과제

- 1) 기독교의 영성과 사회봉사의 연계성 구축
- 2) 교회자원의 조직화와 공식화: 연합활동
- 3) 교회 연합을 통한 고품질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 4) 기독교 사회복지 범인의 이미지 개선
- 5) 지역사회 타 영역과의 연계와 파트너십 활성화
- 6) 패키지 형태의 기독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 아버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조직 운영의 과제

- 1) 책임성 강화: 기독교적 미션과 성과의 연계
- 2)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 확립: 핵심 사업 공유 및 브랜드 공유
-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개교회/교단 중심에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지역 연합체 필요-모금 및 사업 공유)
- 4)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 가치가 내재된 전문적 대안 제시
- 5) 기독교 사회복지 인력(특히, CEO)의 전문성 강화
- 6) 영성과 사회복지 전문성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 7) 기독교 사회복지 브랜드 개발

교회 사회봉사의 활성화 과제

- 1) 한국교회의 재정·인력·공간제공을 확대하는 노력
- 2) 교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
- 3) 디아코니아를 위한 범교단의 참여 장려를 통한 교회연합
- 4) 전국적인 교회 사회복지활동 네트워크 조성
- 5) 연합기독교사회복지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한 상시적 조직 구축

교회사회봉사 분야(복지)

- 1) 자선: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 지원
- 2) 가치회복: 가족, 효, 남녀평등, 일자리
- 3) 소통 및 연계: 계층간/지역간/연령간 결연, 멘토링
- 4) 통합: 혼혈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 5) outreach: 노인단독세대, 거리노숙인, 가출청소년
제3세계 빈곤

체계적인 봉사체계 구축

- 1) 공식적인 조직외 강화
- 2) 사회적 인정과 지지
- 3) 지역사회특구에 대한 전문적 대응
- 4) 지역사회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 5) 통합적(신체적, 관계적, 사회심리적, 정서적) 접근

자원 봉사의 과제

“자원봉사 활동은 물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 1) 자발성 (=강제성)
- 2) 지속성 (=일회성)
- 3) 자아존중과 삶의 질 향상 (=물질적 지원)
- 4) 사회자본 구축기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시스템 제공 (=개인적 차원)



감사합니다

정무성



발제3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방안

-자원봉사거점(platform)의 설치운영-

이 성 록 /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방안

-자원봉사거점(platform)의 설치운동-

이 성 록³⁾ /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I. 서언

자원봉사의 큰 물결이 일고 있다. 인류 사회에서 아름다운 인간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인간행위로서 자리매김 되어 온 자원봉사 활동은 역사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양태로 실천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21세기 인류사회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적 차원의 인간성 실현이라는 의미를 확대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전세계적 자원봉사 물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대안론의 이면에는 자원봉사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숙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사려 깊게 관찰해 본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다면서 양적 성장을 찬양하기 전에 지금쯤은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가장 큰 위기의식의 근거는 자원봉사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심(道心)을 잃고 속심(俗心)에 빠지고 있다. 자원봉사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3)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한국교회봉사단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한국자원봉사개발원 원장
e-mail: society21@hanmail.net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심이 속심으로 떨어져 선은 선이로되 위선이 되고 독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인가부터 자원봉사는 일상을 버리고 정책이 되고 사회적 이벤트가 되어 버렸다. 언제인가부터 사회체계에 편입되면서 합리성을 추종하는 제도가 되고 밥그릇이 되어버렸다. 언제인가부터 영역경쟁을 하고 정부예산을 탐하는 미혹에 빠져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에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시장에 대한 환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즉 공동체적 삶,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향성을 크게 강화하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조용한 혁명은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용한 혁명을 주도해야 할 자원봉사가 훼손되고 변질되고 있다. 이제 영문도 모른 채 남이 춤추니 덩달아 춤추는 사비주의를 탈피하여 자원봉사의 본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편 교회는 신학적 측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한편 사회학적 측면에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동시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이 집합된 하나의 집단이므로 주민생활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구원의 역사적 과정으로서 인간화와 개발, 윤리적 책무 등의 중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적 신념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삶의 에너지가 사회화 되거나 구조적 혹은 환경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연화 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 왔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발로와 에너지를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한국 기독교가 양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교회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가 사랑과 나눔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교적 많은 물질적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한국 교회의 기형적 양상에 대하여 내부적 각성과 갱신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교회갱신, 사회참여, 사회선교, 기독교 공동체운동

등의 방향제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본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하나의 분파적 흐름으로 자리매김 되었을 뿐이며, 외적으로는 그나마의 노력마저도 사회과학적 실천방법론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회적 주변부에 머무르는데 그치고 있다.

20세기말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시민사회의 의식변화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켰고, 동시에 타종교의 변화에 부응한 적극적인 사회봉사 확대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은 물론 단절과 고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교회의 사회참여와 사회봉사는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한국교회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조화를 통한 이웃과 사회에 책무를 다하는 교회로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다행히도 자원봉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련의 경향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었고 때마침 교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각성은 “한국교회봉사단”의 결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방안”에 관한 토론 역시 단지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의 가치를 회복하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는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는 자원봉사센터를 이해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제자는 이러한 전제들을 담아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참여방안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회의 기능과 자원봉사

1) 기독교 신앙과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정 인간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미 있는 타자로서 상호작용의 독특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자아성취(self-actualization)를 이룩하여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

는 인간성 창조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자원봉사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으로써 대립과 억압의 사회적 관계를 타파하고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변혁의 노력으로서 곧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노력이다.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자원봉사는 특히 사랑의 힘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려는 기독교적 창조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독교의 신앙적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으뜸 강령은 사랑과 봉사와 자기희생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성경에는 한 구절 건너마다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 「친구를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큰사랑이다. 이에 더 큰사랑은 없다」고 하였고, 보다 근원적으로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선언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사랑이 없다(요한복음 15:13-15)」고 가르치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의 제물로서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이다.

기독교의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박애(博愛)는 단순히 실존적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새로운 질서는 공동체적 삶으로서 구현된다. 기독교적 공동체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공동체 원리인 「유유상종(類類相從)」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적이고 이질적(異質的)인 구성원들 간의 「상호수용」이다. 즉 「너희 친한 사람끼리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 훌륭하냐?」(마태복음 6:38-48).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모두가 하나이므로(갈라디아서 3:28, 고린도전서 12:13)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로마서 15:7, 요한복음 13:15, 13:34)는 것이 기독교적 공동체의 대원칙이다. 그리고 박애의 정신과 공동체의 실천원리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라」(로마서 12:14-15)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공동체는 이질적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서도, 서로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로서 공동체 사상은, 오늘날 사회적 파행과 위기에 직면한 인간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대안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자원봉사의 정향과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⁴⁾은 「건강한 사람(respectable)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outcaste)에게 필요하다(마가복음2:17)」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황금률로 현실화된다.

즉 기독교적 사랑은 「우선순위」의 역전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의미한다. 동시에 아가페적 사랑은 단순히 실존적 문제에 대한 도움(relief)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삶의 양식과 기존질서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통치와 섬김이 통합되는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새로운 자원봉사운동」은 단순한 도움활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운동을 지향함으로써, 기독교적 사랑의 「새로운 질서」 사상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의 기능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두 단어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헬라적 전통에 뿌리를 내린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로써 '밖으로 모여진 무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예배와 절기 등 집회를 향하여 '모이는 교회'를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적인 전통에 근원을 둔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α)라는 단어로써 '사방으로 흩어진 무리'라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는 성공적이지만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교회로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면 분열되고 격리되지만 서로 같은 것을 강조하면 관계가 발전하며 좋은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독특한 목적과 가치관을 갖고 지역사회와 만난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서로 공통된 관심과 욕구를 통하여 각 부분을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써 지

4)요한복음 13:34

역사회를 위한 견고한 자원체계가 구성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자원봉사센터들이 교회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정체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각자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집합 곧 사회적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고립과 격리를 벗어나 상호 지지적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둘째, 교회는 지역사회의 결함과 연속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셋째, 교회는 지역사회의 신입자들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화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넷째, 교회는 재정적,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신체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교회는 결혼, 장례, 출생, 성년 등,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념하는 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섯째, 교회는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한편 비복지적인 제도와 관습에 도전하여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Garland, 1994).

3) 교회의 자원봉사활동과 동향

한국 개신교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그 포괄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적 현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형태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회조직을 통하여 직접 사회봉사를 실행하는 유형이다. 최근 교회가 직접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회 조직 내에 봉사부서를 설치하고 소속된 신도들이 지역사회 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으로서 대체로 중소교회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집, 공부방, 놀이방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빈민구제를 위한 다일공동체나 두레공동체, 장애인 교회 등도 교회 중심의 참여유형이라 하겠다.

둘째, 교회조직과는 별개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교회 성도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한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이 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기독교계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전문적 의견과 시민의 입장 제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셋째, 교단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형태로서 교단차원의 사회복지봉사부서를 설치하고 현안문제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관련 기관 운영 등의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교단차원에서 소속 교회들의 사회복지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조사와 정책수립, 자료제작, 교육실시, 시범사업 실시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넷째,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다. 개(個)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화성시 향남읍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여개 교회가 연합하여 비전클럽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지역교회들이 초교파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교단차원의 연합을 통하여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봉사를 시행하는 유형이다. 한국교회봉사단이 그 대표적 사례로서 초교파적인 연합조직들이 인권문제, 환경문제,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 또 전쟁과 국제적 기아사태 등에 대하여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봉사 활동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사회적 비중과 자원의 규모에 비하여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사회복지봉사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선교목적의 봉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만큼 능력도 갖고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하였고 특히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의 조사 자료(2007)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회복지봉사를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시작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응답자들은 재정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설 및 공간 부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곧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회봉사를 교회의 주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통적인 자선방식의 물량지출형, 시설운영형의 사회복지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봉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실천되는 관계 중심형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원봉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하나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으로서 행위론적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실존적 삶의 방식을 조명하는 것으로서 존재론적 관점이다. 행위론적 관점은 선택에 의한 자발성에 초점을 두고 존재론적 관점은 성찰에 의한 의무성에 그 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은 이제까지 자기 성찰에 의한 의무성에 초점을 둔 존재론적 관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기 이익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선택과 직면해 있는 세속적 인간의 모습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교회에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있으나 세속의 행위 주체로서 인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사회봉사활동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천의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교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들을 보면 교인들의 교회 내에서의 태도와 교회 밖에서의 태도가 다르며, 따라서 양적 측면의 참여수준은 물론 특히 질적 측면에서 기술수준 역시 낮게 나타난다. 대체로 교회 내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거나 단순 구제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특히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은 낮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정신은 각 나라와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라 나름대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치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공통된 이념으로 정리될 수 있기도 하다. 그 중심된 이념들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사상과 일치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부문의 기관과 시설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통된 이념들을 확인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III.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

앞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교회들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전문성, 그리고 인적자원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자원과 전문성과 같은 요소들이 체계적 지역사회 접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재정적 자원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지만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회 내에서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과도한 자원부담이나 소모적 자원유출을 제어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개념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전제조건 검토

지역교회는 외부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분과, 변화적응이 가능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교회 역시 시간에 따라 발전하고 조직적인 절차를 따라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며 그 자원을 내부와 외부, 양쪽으로부터 받아들인다(Moberg, 1984).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느끼고 생각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와의 협력과 연계를 도모하려고 할 때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개교회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부분과 상대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갖는 기능들은 양립될 수

있는 부문과 상충될 수 있는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적 역학관계는 외부적, 또는 공식적인 상황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Garland, 163)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데 있어서 반드시 파악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둘째, 교회의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역사회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교회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 조직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조직은 대체적으로 내향적 조직으로서 외부 파워에 대해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대표적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인 사회복지시설·기관들 역시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자원 공급자로서 지역 서비스조직은 자원 수요자로서 일방향의 관계에 머물고 있다. 물론 교회와 지역 서비스 조직 각각의 사회화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먼저 각각의 정체성이 담보되는 역할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목회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조사 자료(2007)에 의하면 목회자의 의지가 사회봉사의 원동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수준이 교인들에 비하여 오히려 낮게 나타나거나 중직자들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임종운, 1999;이성록, 2002). 그 원인으로는 목회자들이 재정적 부담감을 느끼거나 지식과 기술의 부족, 자원의 유출을 꺼려하는 심리적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그 동안 교회의 사회참여는 물질 자원중심의 서비스에 머문 경향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회 규모와 능력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센터와 파트너십의 구축

교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사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전문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교회 사회봉사를 소극적인 구제 혹은 자선 차원에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적극적인 교회 자원봉사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문조직들과 파트너십

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 내적 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기관과 협력 가능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바, 교회 자원봉사의 문제점은 사회참여를 제한해 온 신학적 차원의 문제와 비록 사회참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천방법과 기술 결핍이라는 사회과학적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학적 차원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방법론상의 문제로 이에 대한 학제간의 역할인식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 역량은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조직화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며 실천 방법론상의 과제는 전문기관과 연대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적 요구와 성도들의 참여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광범위한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 영역은 물론 교육, 환경, 문화, 보건의료, 치안, 국제문제, 재난재해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참여 요구와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현재 사회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원봉사 참여자들 역시 자신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선택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전문조직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지위란 법적 제도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설명력 있는 제도 혹은 체계와 연대함으로써 확보하는 사회적 보편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의 전도용 사업이라는 협소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긍정적 사회 기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록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업수행 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전문조직과 연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최근 자원봉사활동을 지지하는 인프라로서 전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 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한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제기한 교회의 절대적 정체성과 교회 내부 자원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독립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

센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자는 이미 이러한 분산된 이해관계를 매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원봉사 플랫폼(Volunteer Platform)⁵⁾"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이성록, 2004).

3. 자원봉사 플랫폼의 설치

1) 자원봉사조직 유형구분

자원봉사활동은 시대의 가치와 문제에 대응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행위양식으로서 매우 다양한 조직적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적 유형의 다양성은 이념적 측면, 특히 자기 성찰을 통한 참여를 설명하는 구성주의적 모델에서는 조직유형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실적 측면, 특히 합리적 선택을 통한 참여를 설명하는 합리주의적 모델에서 조직유형 분석과 분류는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갖게 된다.⁶⁾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의 5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이성록, 2003).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교회는 자원봉사 관련조직,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집중모델: 조직의 고유한 목적이 오직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집중모델은 관리조정자 혹은 집중도가 높은 수준의 위원회를 포함한 자원봉사전문기관에 의해, 일정한 관할구역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함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원봉사센터는 집중모델의 전형으로서 정부기관과 행정적 유기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조정자와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조정자와 지도자들 사이에는 공식화된 역할체계가 존재한다.

(2)분산모델: 조직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 자원봉사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형태이다. 전담부서는 조직목적과 고유한 서

5)최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자원봉사 플랫폼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자원봉사캠프" 또는 "자원봉사터전" 등의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설치와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캠프"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6)조직적 유형에 따른 모델구분은 특히 공적 영역에서 역할분담과 주도성 결정의 근본적 근거가 된다.

비스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설계·운용하고 있다. 예컨대 대한 적십자의 경우 재난구호라는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 전담부서인 사회봉사국을 설치하고 있다.

(3)혼합모델 : 집중모델과 분산모델을 결합한 형태로서 혼합모델은, 조직의 근본목적이 자원봉사육성과 양립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라는 고유의 목적과 주민참여를 유인하는 자원봉사육성은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혼합모델에서 관리조정 체계는 집중모델에 비하여 요목화가 미흡하지만, 분산모델에 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조정 체계를 갖고 있다.

(4)지역사회기반모델: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뿌리 조직과 같은 지역사회기반 조직모델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협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경우 지역사회기반모델의 조직은 서비스를 위한 기금개발과 자원봉사참여를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 대체로 지역사회기반 모델은 조직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부 자원봉사 관련부서와, 위에서 진술한 다른 모델들과 협력하는 형태를 취한다.

(5)특별프로그램 수행모델: 조직의 고유한 목적은 자원봉사와 연관이 없으나 조직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서비스하도록 설계된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적 유형이다. 예컨대 기업의 고유한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활동으로서 사회봉사단을 운용한다.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유형을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하면 조정형, 송출형, 수용형 등 3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정형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송출형은 내부 구성원들 중 자원봉사참여 희망자들에게 자원봉사 활동현장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으로서 교회나 기업, 대학 등에 설치된 자원봉사 사무국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수락형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원봉사인력

의 참여를 수락하여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유형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자원봉사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방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진흥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은 집중모델의 전형이다. 무엇보다 자원봉사 에너지를 단순히 활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창출해 내는데 과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특히 분산된 이해관계와 심리적 거리가 작용하는 자원봉사행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 이용에 접근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이성록, 2004; 2008). 즉, 도시가 복잡화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결심하고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 등록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시군소재지까지 접근하는데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단위의 거점, 곧 일상생활권 중심의 거점(platform)으로서 자원봉사캠프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시정촌(읍면동) 단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일본의 경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동네단위의 플랫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어드바이저(advisor)를 배치하고 있으며 동네단위 거점에도 어드바이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 내에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 미국과, 읍면동 단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시군 단위에서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자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에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캠프 설치를 제안하였고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⁷⁾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가치실현을 초월하여 사회자

7)서울의 자원봉사캠프 제도는 2005년 9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009년 7월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캠프는 562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동시에 2009년 7월 현재 실제 활동 중인 상담가의 수는 2,30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문화자본으로서 인간의 생존방식으로 자리매김 되고 국가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권 거점(Platform)의 설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교인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내부의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파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송출형의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는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재정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면서도 동네단위의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캠프를 통해 내부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송출할 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상생활권 중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현장을 소개하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정형의 자원봉사캠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교회들과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정보와 전문기술을 제공하여 교인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자원봉사캠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캠프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자원봉사 보험가입,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력관리 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과 같이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자원봉사 어드바이저 제도의 도입

자원봉사 플랫폼으로서 읍면동 단위나 동네중심으로 설치되는 자원봉사캠프는 일상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전문가가 필요하듯 자원봉사캠프에도 전문가에 준하는 유능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주민의 주도성과 현실적으로

유급 전문가를 배치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전문적 과업을 수행하는 “어드바이저⁸⁾”가 중심이 되어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캠프는 본연의 사명과 기능이 자원봉사센터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동료 간에 서로 부담 없이 상담하며, 서로 지지하고 돕는 풍토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원봉사가 신입 자원봉사자 혹은 동료 자원봉사자의 상담에 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어드바이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캠프를 설치함과 동시에 적극적 참여의지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목회자나 교인을 어드바이저로 양성하여 교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안내하고 문제에 직면한 자원봉사자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상담 창구역할과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캠프 설치를 지원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어드바이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어드바이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조정자들이 어드바이저와의 함께 일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협동기술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자원봉사센터는 어드바이저를 관리조정자와 동역자(Co-Worker)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캠프와 자원봉사센터 간의 유기적 파트너십이 요구되듯이 자원봉사센터의 유급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캠프의 어드바이저 간의 유기적 협동체계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협동을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무수행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교회가 지니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결국 교

8)지역에 따라 어드바이저(상담가), 혹은 멘토, 코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어드바이저, 아소시에이터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신학, 신앙 그리고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기실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본질적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이제 교회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차원에서 벗어나 양자 모두를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므로 사회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당위성 논의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 과제는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특히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운용체계 구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안한 교회 차원의 자원봉사 플랫폼 제도(자원봉사캠프)는 아직 체계적으로 시행된 바 없으나, 교회가 선행함으로써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전국 4만5천여개의 교회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크게 변화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소속된 “한국자원봉사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운용자문단”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이 보다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자원봉사 영역은 양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질적 측면에서 변질되어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아무쪼록 교회들이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질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는 일에 모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사례발표

"종교단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종교 Happy Community Center

김 희 경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종교단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종교 Happy Community Center

김 희 경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1 사 업 명

- ▶ 종교단체가 함께 만드는 Happy Community Center

2 비 전

- ▶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

3 목 표

- ▶ 종교단체 단위 자원봉사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4 사 업 의 필 요 성

- ▶ 폭넓은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단위 차원의 네트워크 환경이 요구됨
- ▶ 종교의 본질적 사랑, 섬김,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문제를 인식하고
- ▶ 종교단체 구성원이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 고취를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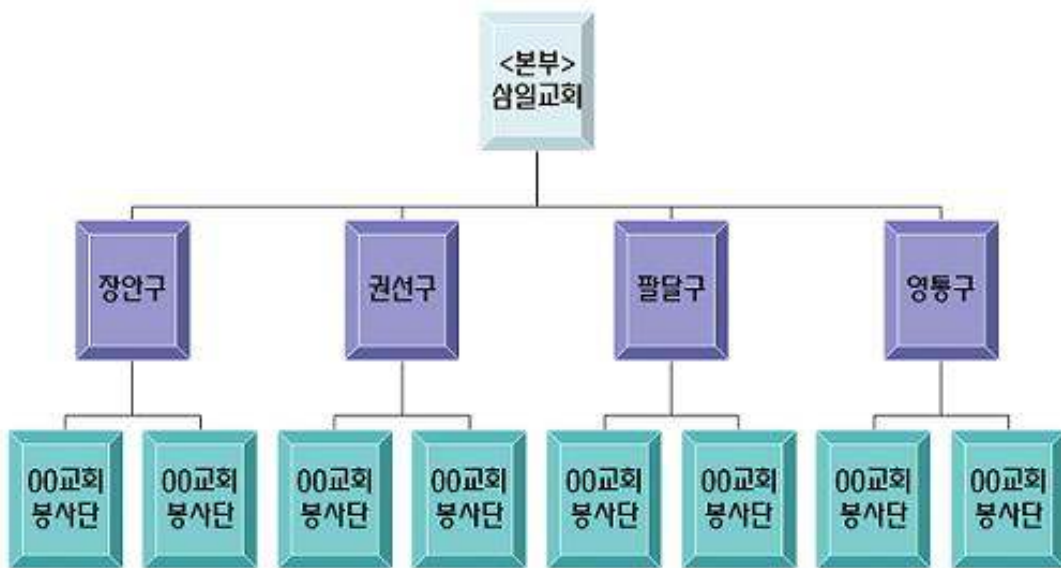
▶ 또한,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미래 지향적인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종교단체 자원봉사활동이 절실히 요구됨

5 사 업 의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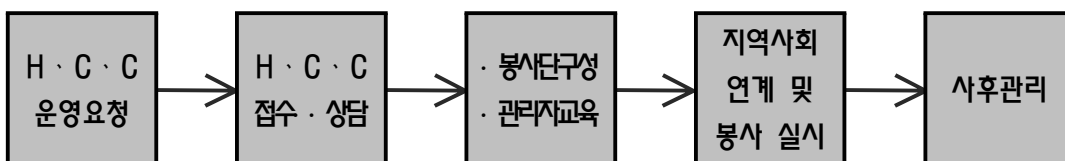
- ▶ 나눔과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형성 고취
- ▶ 나눔과 참여를 실천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의 허브 역할
- ▶ 지역사회 자원의 능력 배양 및 네트워크 연계 개선을 위한 운동 정착

6 사 업 내 용

- ▶ 종교단체 중심의 Happy Community Center 운영
-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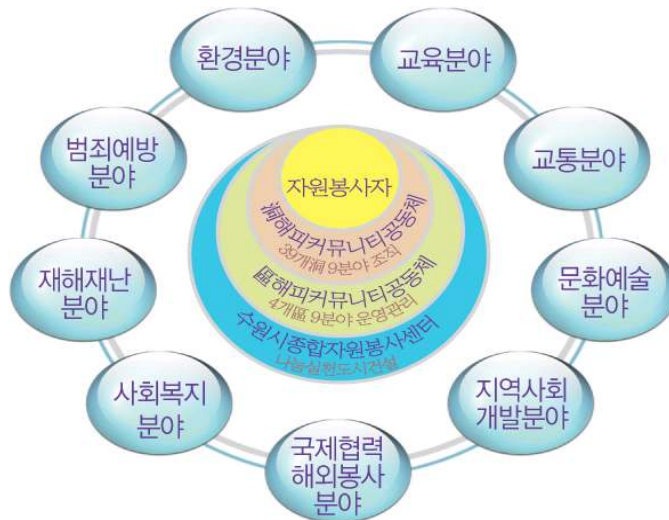
- ▷ 운영절차



▷ 사업내용



▷ 사업분야



7 HCC 운영요청

1. 자원봉사단 관련

1) 자원봉사 개인 및 단체 등록

- 등록조건

- 수원시에 거주하는 일반봉사자
- 수원시 관내의 수요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일반봉사자(대학생 이상)

- 자원봉사단체 가입신청서(첨부1) 및 자원봉사자 회원 명단(첨부2) 작성 및 제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swvc.suwon.ne.kr) -> 자료실 -> 서식양식

4,5번 작성)

- 자원봉사단 최소인원은 10명으로 규정

2. 자원봉사 카드 발급

- 발급기준
 - 수원시 거주하는 일반 자원봉사자 (대학생 이상)
 - 수원시 관내의 수요처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일반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 실적 20시간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필수조건)
 - 등록 후 ‘월’ 기준 3개월 이전 실적만 인정

3. 인센티브 할인가맹점 등록

- 총 26분야 59개 업체
- 인센티브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첨부3) 작성 및 제출
- 신청 후 “자원봉사전자카드 할인 가맹점” 협약서 작성
- 나눔 스티커 및 협약서 교부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분기별마다 제작되는 소식지에 기재하여 홍보

4. 자원봉사단 명칭 선정

- 교회 이름을 기준 통일화하여 자원봉사단 명칭 선정

5. 자원봉사단 인력 구성 및 특성 파악

- 자원봉사단 제공현황 파악(첨부4)

6. 자원봉사단 발대식 진행

- 자원봉사단이 구성된 교회별 발대식 진행
- 발대식 선서(첨부5)

7. 자원봉사단 각 홍보담당 구성

-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글, 사진 취합 및 보관
- 각 교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OUR STORY” 를 이용하여 글과 사진 홍보

8. 자원봉사관리자 구별 대표단 구성
 - 동단위의 최소단위의 교회를 구별로 조직하여 운영관리
9. 각 봉사단 비전 및 구체적 사업 계획 작성
 - 자원봉사단 조직 후 운영 체계 마련

8 자원봉사단 및 관리자 교육

1. 자원봉사단 기초교육 실시
 - 기초교육 4시간 반드시 이수
2. 자원봉사단 전문특성화 교육 실시
3. 자원봉사관리자 매니지먼트 교육 실시
 - 자원봉사단 운영 관련 교육 실시
 - 슈퍼비전 지원

9 자원봉사단 활동

1. 지역사회 기초조사 실시
 - 수요처 현황 파악
 -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 파악
 - 지역사회자원 조사
 - 구내 학교 현황파악
 - 구내 종교 관련 자원봉사 단체 파악
 2. 자원봉사관리자 자원 연계 실시
 3. 자원봉사 실적 관리
 - 카드 리더기를 통해 실적 관리
 - 카드 리더기가 없는 곳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익월 5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원봉사센터 발송
- (첨부6)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swvc.suwon.ne.kr) -> 자료실 -> 서식양식 12

번 작성)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메일 : suwonvol@suwon.ne.kr)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팩스 : 228-3823)

- 재가봉사활동은 자원봉사캠프장의 확인으로 확인서발급 후 익월 5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원봉사센터 발송

4.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 구내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등 수요처 프로그램 파악

10 센터 지원사항

1. 연도 및 분기별 사업계획
2. 자원봉사 교육 관련 지원
3. HCC 운영 관련 지원
4. 자원봉사실적 전산관리
5.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6. 인센티브 할인가맹점 이용 혜택
7. 수원시 우수프로그램 지원 예정
8. 슈퍼비전
9. 내규 제시

자원봉사단체 가입신청서

※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구분 학교(), 단체(), 기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단 체 명				회 원 수	명
단 체 속 성	사회복지(), 시설단체(), 봉사단체(), 전문봉사단체(), 기업봉사단(), 교통질서(), 방범순찰(), 인명구조(), 재난재해(), 환경보호(), 공공기관(), 복지시설(), 팀(), 동아리(), 기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홈 페이지			사무용 메일		
설 립 일 자			법 인 형 태		
설 립 목 적					
주 요 활 동					

■ 대표자						
성 명				E mail		
주 소						
연 락 처	HP			집		

■ 사무담당자						
성 명				E mail		
연 락 처	HP			집		

상기 단체는 봉사활동을 위하여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귀하

·첨부 2

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단 대장

▣ 단 체 명 :

번호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원봉사단 현황

단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우 : -)	팩스번호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주소		핸드폰		
설립목적				
주요활동				
자원봉사자 제공 세부현황				
봉사제공분야	참여인원	일정 및 시간	활동내용	비 고
기타사항				

자원봉사자 선서

하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자세로 자원봉사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원봉사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은 절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은 물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타인에게 폐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작은 것이라도 타인에게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을 생활의 신조로 삼아 일상생활에 자원 봉사 정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월 일
00교회 자원봉사단 대표 000 000



- **한국교회봉사단 소개**
- **한국자원봉사포럼 연혁**



부록1.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1. 연혁

일 시	내 용
2002.01.21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창립
2005.08.24-28	‘기독교사회복지EXPO 2005’ 개최
2006.11~12	자원봉사캠프 구축사업(행정자치부)
2006.12.21	보건복지가족부 제324호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07.01.30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총람 발행
2007.02~12	목회자 사회복지의식 향상 교육사업 (행복한 나눔실천/공동모금회)
2007.05~12	자원봉사캠프 구축사업(행정자치부)
2007.06~09	2007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 사회복지대회
2007.12.07	서해안 원유유출사고(07.12.07) 17만여명 자원봉사 참여
2008.05.10	미얀마, 중국 구호모금과 긴급구호사업
2008.07.30	북한 밀가루 100톤 지원
2008.08.07	북한 비료 100톤 지원
2008.08.21~23	2008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개최(부산지회)
2008.09.05	북한 밀가루 200톤 지원
2008.09.29	북한 밀가루 200톤 지원
2008.10.27	논현동고시원참사(08.10.20) 유족 위로와 장례 주관
2008.12.24	2008 노숙인과 함께하는 거리의 성탄절 개최
2009.02.25	노숙인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2009.05.12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교회봉사단 통합
2009.07.20	기독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발표토론회 및 성금전달
2009.09.30	필리핀 태풍 ‘켓사나’ 긴급구호 및 의료봉사
2009.10.07	인도네시아 지진 긴급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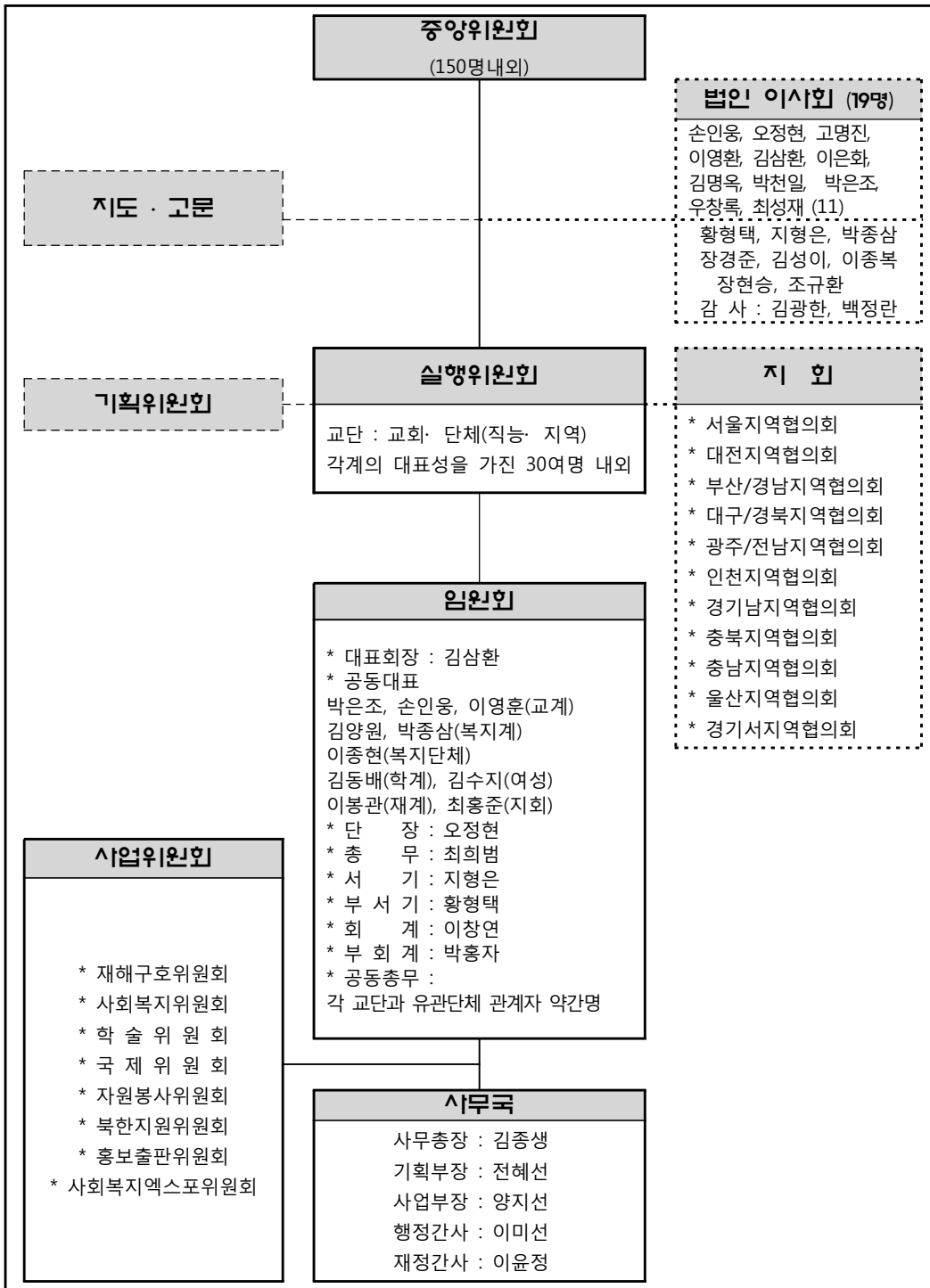
2. 설립목적 및 소개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과 사회를 계몽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민족의 잃은 나라사랑을 독립운동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교육하는 일이 학교설립으로, 병약자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이 병원설립으로, 한국전쟁이후 전쟁고아와 장애인과 홀로 된 노인들을 섬긴 일이 복지시설로, 사회소수의 인권옹호와 민주화에 기여하면서 한국사회발전과 함께 동행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온 한국교회는 2007년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국교회봉사단은 창립되었다. 2002년 한국교회 사회복지협의체로 발족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와의 2009년 조직통합을 통해 명실공히 상생과 공존의 기치아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희망과 평화를 만드는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사의 구심이 될 것이며 나아가 행복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독교 내부 사회복지사역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재해구호, 자원봉사 나아가 갈등과 양극화의 시대 화해사역까지를 포함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사역을 사회 제 단체와 연대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섬김과 나눔과 돌봄의 사역을 담당하고자 한다.

3. 조직



4. 주요 사업

가. 국내외 구호 사업

1) 서해안 살리기

가) 방제작업 : 2,000여 교회, 170,000 여명 참여

나) 생태복원활동보고서 발간 : 서해안 원유유출 생태복원과정을 엮음

다) 지역주민위로사업 : 생필품 지원사업 (예장 통합, 합동, 기감, 구세군 등)

무료진료 봉사 (10여개 기독교병원 참여)

무료이미용 봉사

주민연합 위로잔치 (공연, 7개 대학 방제활동, 6개 병원 무료진료, 어린이와 청소년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 길거리사진전시회, 태안사랑장터, 지역주민식사접대, 여름이불 선물) 바다마을 성탄잔치

라) 교회 여름수련회 태안유치 캠페인

마) 목회자 위기상담과 갈등해소 지도자 워크숍

바) 아동지원 (의항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2) 미얀마 구호 : 2008 미얀마 양곤의 싸이클론 나르기스 피해 주민 집짓기 사업

3) 중국구호 : 2008 중국의 쓰촨성 지진 발생시 구호 성금 전달

4) 북한구호 : 2008 기아선상의 북한 동포에게 밀가루와 비료지원

5) 태백구호 : 2009 태백지역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물사랑 캠페인'과 생수 지원 자원봉사활동

6) 아시아재해구호 : 2009 필리핀 수해지역 생필품 전달 및 의료봉사
2009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역 생필품 전달

나. 복지사업

1) 노숙인복지

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 노숙인 복지사업 현황과약 및 노숙인복지시설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 마련

나) 거리의 성탄절 : 1만명 규모의 전국 노숙인들과 성탄을 기뻐하는 거리의 축제

다) 부활절 희망나눔 : 급식지원

- 2) 아동복지 : 전국 기독교 지역아동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과악 및
성금 지원
- 3) 장애인복지 : 농아인 수화성경 번역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4)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 부산사회복지엑스
포2008 개최
- 5)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출판 : 전국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현
황 수록

다. 기획사업

1) 연대사업

- 가) 아프가니스탄 영양지원 : 한아프간친선협의회와 연대하여 아프가니
스탄의 여성과 어린이 영양 지원)
- 나) 아시아국제회의 유치
- 다) 생명사랑 실천운동 :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와 연대하여 일반인 대
상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사회안전요원 양성
및 사회적 제도 개선)
- 라) 연차대회 : 사랑의 김장나누기
- 마) 통합대회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교회봉사단이 통합하여
'2009 한국교회 섬김의 비전선포식' 개최
- 바) 지역봉사단조직 : 전국지역의 봉사단 조직

2) 화해와 위로사업

- 가) 논현동 고시원참사 희생자 위로
- 나) 용산참사 중재
- 다)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지역 바다마을 성탄잔치

3) 자원봉사

- 가) 서해안 방재 자원봉사
- 나) 태백지역 물사랑캠페인 : 환경교육 및 생수배달 자원봉사
- 다) 강원도 정선 산촌마을 자원봉사 : 집수리, 이미용봉사, 의료봉사, 어
린이 캠프



부록2. 한국자원봉사포럼 연혁

(사)한국자원봉사포럼 단체 연혁

연혁

1995년 10월 18일 한국자원봉사포럼 창립
 1999년 3월 시민자원봉사헌장 제정·공포
 2001년 12월 포럼창립7주년 기념자료집 발간
 2003년 『자원봉사저널』 창간
 2004년 한국자원봉사학회 창립
 2005년 10월 포럼창립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
 2006년 8월 3일 사단법인 허가(행정자치부)
 2007년 11월 뉴스레터 “VOLUNTAS” 창간
 2007년 12월 시민자원봉사헌장 개정
 2008년 12월 정부포상 단체표창 ‘대통령상’ 수상
 2009년 6월 한국자원봉사포럼 광명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

초대회장 : 최일섭(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 前서울대 교수)
 총무 주성수(한양대 교수)

2대회장 : 이윤구(前대한적십자사 총재)
 총무 김통원(성균관대 교수)

3대회장 : 조해녕(前대구광역시 시장)
 총무 이성철(남서울대 교수)

4대회장 : 금창태(前시사저널 사장 · 前중앙일보 사장)
 총무 이성철(남서울대 교수)

5대회장 : 이제훈(한국BBB운동 회장 · 前중앙일보 사장)
 총무 이성록(국립재활복지대학 교수)
 총무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6대회장 : 이제훈(한국BBB운동 회장 · 前중앙일보 사장)
 총무 조승철(한국지역복지봉사회장)
 사무국장 신정애

7대회장 : 김경동(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무국장 신정애

설립목적

하나, 자원봉사 관련 전문학자 및 각계각층의 중견급 관리자들이 모여 자원봉사 운동에 대한 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예, 중고생 봉사활동 등)의 올바른 방향수립, 대안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연구를 다한다.

둘, 또한 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실천에 옮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한국자원봉스포럼은

한국자원봉스포럼은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내실 있는 확대를 위하여 매회 시급한 사회적 이슈를 선택하여 실천가와 학자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중 포럼을 연간 6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위한 전문가초청포럼을 연간 4회, 지방 순회 포럼을 2~3회 개최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지도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원고를 수집, 편집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는 「자원봉사」저널을 년 2회 발간하고, 격월간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자원봉사계의 학자, 관리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에게 자원봉사계의 현안이슈 및 정책제언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체계

■ 지 부 : 사무국 1개소

■ 회 원 : 165명

■ 주요임원 (성명 및 소속)

○ 운영 위원회

회 장 : 김경동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 문 : 최일섭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前서울대학교 교수)

이윤구 (前대한적십자사 총재)

조해녕 (前대구광역시 시장)

금창태 (前시사저널 사장)

이재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前중앙일보 사장)

수석부회장 : 장석준 (한서대 초빙교수·前보건복지부 차관)

부 회 장 : 박현경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창호 (중앙일보시민사회환경연구소 전문위원·COPION 사무총장)

이 사 :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상임대표)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호 ((사)한국자원복지개발원 이사장·강남대 명예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정보부장)

김준목 ((사)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장)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김회동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리은주 (시흥의제21 공동대표)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전무)
 박재진 ((주)드렉스토아 회장)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획본부장)
 이강현 (IAVE 세계자원봉사협의회장)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무처장·교수)
 정구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자광재단 이사장)
 조승철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장)
 최성균 ((사)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장)
 최정숙 (경기에듀봉사단 상임대표)

감 사 : 송운순 (변호사·법률법인 세종 SHIN & KIM)
 정학규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공동대표)

사 무 국 장 : 신정애

운 영 위 원 : 고기숙 (백석대 기독교복지학부 교수)
 구자행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사무국장)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명선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장)
 김미라 ((사)한국자원봉사개발원 사무처장)
 김민열 ((주)이브자리 부사장)
 김범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일 (중앙일보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김정애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민은자 ((주)드림아이에듀 대표이사)
 박수천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영숙 (호주대사관 수석보좌관)
 박윤애 (볼런티어21 사무총장)
 서수용 (한국고문헌연구소장)
 손인암 (광명시의회 의원)
 송민경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안영근 (한국자유총연맹 봉사협력팀장)
 우주호 (성악가·농어촌문화미래연구소 상임이사)
 원 석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소장)
 유경호 (김포시노인복지관 관장)
 유길준 (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유흥근 ((사)강서자원봉사단 리더십센터 소장)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이석우 (의왕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이용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해숙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객원교수)
 진재광 (경기도의회 의원)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최평규 (대통령자문헌법기관 NUAC 상임위원)
 한성심 (성남시의회 의원)

간 사 : 한세리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창립총회 및 제1회 포럼 (1995. 10. 18)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부의 과제”
2. 제2회 포럼 (1995. 12. 4)
 “중·고교 자원봉사 활동, 대학입시에 어떻게 반영하나?”
3. 제3회 포럼 (1996. 3. 21)
 “중·고교 사회봉사 활동,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4. 제4회 포럼 및 자원봉사 전문가 토론회 (1996. 6. 21)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5. 제5회 포럼 (1996. 7. 1)
 “지역자원봉사센터, 서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6. 제6회 포럼 및 일본 자원봉사 전문가 초청강연회 (1996. 9. 6)
 “일본 자원봉사의 발전과정, 그 과제와 전망”
7. 제7회 포럼 및 포럼 1주년 기념세미나 (1996. 11. 21)
 “포럼 1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8. 제8회 포럼 및 1996년 포럼 간담회 (1996. 12. 26-27)
 “96년 한국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97년 전망 및 공동모금법 국회통과
 가능성과 그 대책”
9. 제9회 포럼 (1997. 2. 25)
 “자원봉사 주민공동체운동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나?”

10. 제10회 포럼 (1997. 5. 29)
“美 봉사학습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11. 제11회 포럼 (1997. 9. 25)
“대학의 사회봉사와 중고생 자원봉사 협력방안”
12. 제12회 포럼 및 2주년 기념세미나 (1997. 11. 26)
“기업 자원봉사의 과제와 전략”
13. 제13회 포럼 (1998. 5. 6)
“국난위기 극복과 자원봉사”
14. 제14회 포럼 (1998. 7. 21)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방향과 과제”
15. 제15회 포럼 및 3주년 기념세미나 (1998. 12. 9)
“제2건국과 시민 자원봉사”
16. 제16회 포럼 (1999. 7. 7)
“민간사회안전망 무엇이 문제인가?”
17. 제17회 포럼 (1999. 9. 16)
“효율적 재난구호를 위한 자원봉사시스템,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 민·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18. 자원봉사 현장 선포 (1999. 11. 18)
“행자부와 중앙일보 등에서 후원을 받아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시민자원 봉사 현장과
기본정신, 그리고 행동강령을 포함한 자원봉사의 윤리적 가치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 제18회 포럼 (2000. 2. 25)
“한국의 자원봉사운동, 관(官)의 역할 어디까지인가.”
20. 제19회 포럼 (2000. 4. 27)
“중·고등학교 자원봉사 지도와 평가 이대로 바람직한가. - 현실과 대안 모색”
21. 제20회 정기포럼 (2000. 6월. 29 대구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 조직과 전달체계 문제는 없는가? - 효율적 구조와 현실”

22. 제21회 정기포럼 (2000. 8. 25 전북대학교)
“통일을 대비한 민간자원봉사의 과제 -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23. IYV2001 정책토론회 주관(2000. 9. 4 국회의원회관)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 정책토론회 - 21세기 민주사회를 향하여”
24. 제22회 정기포럼(2000. 10. 인제대학교)
“IYV2001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25. 제23회 정기포럼(2000. 12.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IYV2001에 대비한 광주지역 자원봉사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26. 제24회 정기포럼(2001. 2. 분당 삼성플라자 7층)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자원봉사 지원정책”
27. 제25회 정기포럼(2001. 6. 울산광역시시청 신관3층 대회의실)
“2002 월드컵 자원봉사활동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28. 제26회 정기포럼(2001. 8. 한국통신 강릉전화국 회의실 5층)
“SOS(Save Our Sea)운동과 자원봉사 - 중간점검 및 활성화방안”
29. 제27회 정기포럼(2001. 10. 전국경제인연합회 제3회의실)
“IYV2001한국위원회 사업평가 및 자원봉사 정책토론회”
30. 제28회 정기포럼(2001. 12. 7 포항)
“2002 월드컵 맞이 자원봉사 테마마을 만들기 현황과 과제”
31. “2001 세계자원봉사의 해” 세계자원봉사의 날 행사 (2001. 12. 5 서울)
32. 한국자원봉스포럼 창립 7주년 기념 자료집 출판기념회 (2001. 12. 17 서울)
33. 제29회 정기포럼(2002. 3. 27 서울)
“자원봉사 인증제 어떻게 봐야하나?”
34. 제30회 정기포럼(2002. 5. 17 대구)
“여성 자원봉사 지도력 증진방안”
35. 제31회 정기포럼(2002. 7. 19 서울)

“월드컵의 국민적 열기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2002 FIFA 월드컵 그 평가와 미래전망”

36. 제32회 정기포럼(2002. 10. 17 서울)
“수해복구 자원봉사 평가와 미래과제”
37. 제33회 정기포럼(2002. 12. 9 부산)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38. 제34회 정기포럼(2003. 4. 30 서울)
“참여정부와 민간자원봉사계의 과제”
39. 제35회 정기포럼(2003. 6. 3 서울)
“자원봉사 진흥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40. 제36회 정기포럼(2003. 8. 1 안동)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41. 국제포럼(2003. 10. 10 서울)
“자원봉사 민-관 협력 체계” (영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42. 제37회 정기포럼(2003. 12. 1 서울)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의 반영현황과 개선방안”
43. 제38회 정기포럼(2004. 2. 27 서울)
“청년실업과 NGO의 역할”
44. 제39회 정기포럼(2004. 4. 1 서울)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45. 제40회 정기포럼(2004. 5. 28 거제도)
“재해재난극복 민·관 파트너십 구축방안”
46. 제41회 정기포럼(2004. 7. 16 홍천 비발디파크)
“자원봉사진흥법 제정과 향후과제”
47. 제42회 정기포럼(2004. 10. 15 - 16 강원도 한계령 오색그린야드호텔)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에 관한 100인 전문가초청포럼”
48. 제43회 정기포럼(2004. 11. 5 청주)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49. 제44회 정기포럼(2004. 12. 17 서울 프레스센터)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운동”

50. 제45회 정기포럼(2005. 2. 28 서울 세종문화회관)

“재난재해와 해외자원봉사운동-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51. 제46회 정기포럼(2005. 4. 15 광주)

“광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52. 제47회 정기포럼(2005. 6. 21 서울 배재학술기념관)

“기업의 사회봉사와 파트너십 전략”

53. 제1회 전문가 초청 포럼(2005. 7. 20 서울)

“자원봉사법 통과 이후의 자원봉사정책방향”

54. 제2회 전문가 초청 포럼(2005. 9. 27 서울)

“재난대비 자원봉사 민·관 협력체계”

55. 10주년 국제포럼(2005. 10. 18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동북아 공동번영과 자원봉사, 그리고 기업의 역할(한·중·일)”

56. 제48회 정기포럼(2005. 11. 11 춘천)

“재해재난과 자원봉사 및 관광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57. 제3회 전문가 초청 포럼(2005. 12. 13 서울)

“정부의 자원봉사 훈·포장제 운영 문제는 없나”

58. 제4회 전문가 초청 포럼(2006. 2. 22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당)

“기업의 사회봉사 전망과 과제”

59. 제49회 정기포럼(2006. 3. 28 서울)

“5.31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의 역할과 한계”

60. 제5회 전문가 초청포럼(2006. 4. 25 서울)

“자원봉사 활성화대책”

61. 제50회 정기포럼(2006. 5. 26 서울 세종문화회관 3층 컨퍼런스홀)

“미래의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62. 제51회 정기포럼(2006. 6. 9 대구)
“지역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63. 제52회 정기포럼(2006. 7. 4 서울 서울시청별관)
“인정보상체계의 현황과 과제”
64. 제6회 전문가초청포럼(2006. 9. 26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층 동해)
“노인과 자원봉사”
65. 특별포럼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공동주최(2006. 10. 25 서울)
“자원봉사의 생활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66. 제53회 정기포럼(2006. 11. 3 - 11. 4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한국의 자원봉사 인프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67. 제54회 정기포럼(2006. 12. 15 - 12.16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
“국가발전과 자원봉사운동”
68. 제7회 전문가초청포럼(2007. 1. 31 서울 세실레스토랑)
“한국해외원조사업의 현황과 전망 - ODA 및 봉사단파견사업을 중심으로”
69. 제55회 정기포럼(2007.3. 28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무엇을 담을 것인가”
70. 제8회 전문가초청포럼(2007. 5. 16 서울 코리아나호텔 3층 사까에)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 정책방향”
71. 특별포럼(2007. 7. 3 양천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 10년의 역사와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센터의 역할”
72. 제1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2007. 8. 23 ~ 24 충북 괴산군 보람원)
• 1세션 I 자원봉사 가치증진과 참여촉진
73. 제56회 정기포럼(2007. 9. 20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기업사회봉사활동과 자원봉사센터의 연계방안”
74.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특별포럼(2007. 10. 22.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홀)

“노블레스오블리주 자원봉사 실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75. 제57회 정기포럼(2007. 11. 30 ~ 12. 1.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현황과 활성화 방안”
76. 고양시 자원봉사10주년 특별포럼(2007. 12. 6. 고양시 관동대학교 명지병원 대강당)
“시민사회 자원봉사운동의 가치와 철학”
77. 제9회 전문가초청포럼(2008. 2. 12.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
“새 정부의 자원봉사정책을 듣는다”
-국민통합차원에서 자원봉사정책과 자원봉사운동의 방향-
78. 제58회 정기포럼(2008. 3. 27. 굿네이버스 강당)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자원봉사 핵심과제”
79. 서해안살리기 자원봉사 특별포럼(2008. 4. 18 ~ 19. 홍익대 만리포 해양연수원)
“서해안살리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과제”
80. 제15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특별포럼(2008. 5. 22 ~ 23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100만시대의 다문화 자원봉사”
81. 제59회 정기포럼·제20차 대구자원봉신포럼(2008.7.4~5.대구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
“한국자원봉사의 정책진단과 방향모색”
82. 제10회 전문가초청 국제포럼(2008. 7. 11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83. 제2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2008. 8. 28 ~ 29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
• 트랙1-4세션 I 자원봉사 민간중앙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84. 제60회 정기포럼(2008. 10. 2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3년, 평가와 과제”
85. 제82회 포럼/다문화자원봉사 특별포럼(2008. 10. 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국제회의장)
“시민사회와 다문화 자원봉사”
86. 제61회 정기포럼(2008. 11. 18 국회도서관 대강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87. 제11회 전문가초청 국제포럼(2008. 11. 20 프레지던트호텔 ‘동해’)
“미국의 자원봉사 동향과 자원봉사 컨설팅”
88. 제85회 포럼/학술연구용역발표회(2008. 11. 28 고양교육청 대회의실)
“자원봉사 인정보상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
89. 제86회 포럼/자원봉사전문가 집담회(2008. 12. 4 만리포 씨사이드캐슬)
“자원봉사 민간리더십 강화방안을 위한 네트워크”
90. 제87회 포럼/노블레스오블리주 자원봉사 특별포럼(2009. 3. 24 백범기념관)
“경제위기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블레스오블리주 자원봉사 특별포럼”
91. 제62회 정기포럼/제16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특별포럼(2009. 4. 17 ~ 18 라비돌리조트)
“자원봉사! 희망에너지”
• 제1세션 | 자원봉사 전국진흥기구의 설립모형과 운영방안
• 제2세션 | 자원봉사 지원조례분석과 운영의 자율성 연구
92. 제89회 포럼/한국자원봉사포럼 광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2009. 6. 10 광명시평생학습원)
“녹색사회만들기와 자원봉사”
93. 제3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2009. 7. 9 ~ 10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 트랙2-3세션 | 정부의 복지정책변화와 자원봉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영역의 상충에 대한 방안-
94. 제63회 정기포럼(2009. 8. 26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대학입학사정관제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계의 역할과 과제”
95. 제64회 정기포럼(2009. 9. 1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간·지역단위 자원봉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연구조사사업

연구명	기간	발주기관
서울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천모델 구축방안 연구	07.09 ~ 07.1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인정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	08.06 ~ 08.11	행정안전부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09.06 ~ 09.12	보건복지가족부